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56期(2025.11.21) WWW.MINGHUI.ORG

한글판 1020호 minghui.or.kr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1월 9일 개막했으며,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내용

- 【중국법회】 5년간의 진상 현수막 붙이기와 수련
- 【중국법회】 사부님의 법은 내 정념의 근원
- 【중국법회】 자비로운 선념으로 진상을 알리다 (상)
- 【중국법회】 자비로운 선념으로 진상을 알리다 (하)

〈목 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9

■ 중국법회

5년간의 진상 현수막 붙이기와 수련 11

사부님의 법은 내 정념의 근원 18

자비로운 선념으로 진상을 알리다 (상) 28

자비로운 선념으로 진상을 알리다 (하) 40

■ 수련교류

깊이 숨겨진 사람마음을 제거하다 50

대법 연공음악을 임의로 변경해선 안 된다 59

중국인의 ‘외국 증오’ 정서와 관련된 기본 사실들 59

대법제자는 사심 없이 오직 남을 위해야 한다 66

감옥에 있는 수련생의 형사 재심 청구를 돕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 70

선(善)을 권하는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72

대법제자의 진정한 ‘선(善)’에 대한 나의 이해 77

사돈댁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사람 마음을 제거하다 80

■ 시사평론

난상(亂象) 속에서 오직 신만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 85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2025년 11월 8일, ‘브라질 2025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득 교류회’가 상파울루에서 열렸다. 14명의 브라질 파룬궁수련자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실천하고, 안으로 찾아 집착을 내려놓았으며,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회귀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각종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수련심득을 교류했다.

2025년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캐나다 온타리오 각지에서는 이미 축제 활동이 시작돼 다채로운 퍼레이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됐다. 여러 행사에 초청받은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천국악단’이 11월 15일 이른 아침, 이들은 뉴마켓(Newmarket)으로 가서 오전 11시에 열리는 현지 행사에 참가했고, 이어서 해밀턴(Hamilton)과 런던(London)시에서 개최한 오후와 저녁 행사를 마쳤으며,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밀턴(Milton) 퍼레이드에 참가한 후, 뉴캐슬(Newcastle)로 이동해 오후 5시 30분 축하 행사에 참가했다. 천국악단은 시민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파룬따파의 진선인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함께 전했다.

2025년 10월 25일, 멕시코 베라크루스주 주도인 할라파(Jalapa)에서 제9회 카테리나 축제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렸다. 현지 파룬궁 수련자들은 퍼레이드를 통해 파룬따파의 진선인 원칙을 전하며,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할라파 시민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구원의 배’를 상징하는 꽃차가 특히 관중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그 시선을 끄는 디자인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꽃차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많은 관람객에게 파룬따파와 전통적 가치를 통해 전하는 내면의 평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마음의 완충제였다. 그들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파룬궁수련자들의 퍼레이드는 그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다며 “파룬궁수련자들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다.”라고 말했다.

11월 8일과 11일, 프랑스 파룬궁수련자들이 각각 파리 이탈리아 광장, 알

자스의 콜마르(Colmar), 파리 벨빌에서 파룬궁 소개 및 진상 알리기 활동을 개최해 각계 인사와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화가 위그 드카르팡트리(Hugues Descarpentries)는 말했다. “진선인은 전 인류가 갖춰야 할 가치관이며,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인류 탄생 이래, 인간의 의식 수준은 정체돼 여전히 같은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류는 정신적인 면에서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미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인류는 변화할 수 있으며, 어쩌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더 발전된 인류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룬궁, 이는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파룬궁이 인류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세트(Licetth)는 변호사로, 중공이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는 것에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 독재 정권의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은 매우 근면하고 그들에게는 깨어 있는 의식이 있으며,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즉 자유롭게 살 권리가 필요합니다.” 수지(Suzy)는 병원에서 근무한다. 그녀는 중공이 진선인을 신앙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하며 말했다. “박해는 인류를 파멸시키고 전 세계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영원히 반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살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해서는 안 됩니다.”

11월 15일 토요일, 프랑스 서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캥페르의 메다르 광장에서 파룬따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파룬궁수련자는 오가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파룬궁 제5장 공법을 시연했다. 26년간 중국 파룬궁수련자가 겪은 박해와 중국공산당(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설명했다.

11월 8일, 벨기에 브뤼셀의 알베르틴 광장(Place de l'Albertine, 프랑스어)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박해 반대 행사를 열어 많은 시민이 발길을 멈추고 관심을 보였다. 포르투갈 출신의 마누엘 발렌테(Manuel Valente)는 벨기에 뤼번대학교(K.U. Leuven)의 철학 연구자다. 그는 중공의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장기적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든, 특히 정치범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어떤 ‘공정한 사회’를 이해하든 간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어 그는 중공은 매우 사악하며, 이러한 가치들을 약화하려는 정권이라고 지적하며 “그것은 끔찍한 정권으로, 이런 박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미카엘은 ‘진선인’ 이념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매우 아름다운 방식이고, 선량함은 사람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이며, 관용은 타인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진선인’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근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11월 15일, 이날 날씨는 비교적 추웠고 기온은 섭씨 0도 안팎이었다. 핀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토요일 헬싱키 캄피(Kamppi) 광장 인근에서 진상 알리기 활동을 견지했다. 수련자들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중공의 잔혹한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렸다. 여기에는 불법 감금, 고문, 강제수용소 및 소름 끼치는 생체 장기적출이 포함되며, 아울러 국제사회가 26년간 지속된 이 폭행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시민들의 피드백이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줄곧 당신들의 소식에 관심이 있었어요.” 헤네나(Henena)는 예전에 파룬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인터넷에서도 관련 정보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여러분을 굳게 지지해요.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파룬궁을 탄압하는 행위는 완전히 틀렸어요!” 그녀는 시간이 촉박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수련자에게 거듭 말했다. “여러분의 일을 저는 주저 없이 지지해요.”

11월 8일, 네덜란드 파룬궁 순회 진상팀이 바세나르(wassenaar)에서 진상 알리기 활동을 개최해 현지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지역 유일의 신문 매체인 ‘바세나르 뉴스(De Wassenaarse Krant)’가 활동을 보도했다. 사진 기자는 파룬궁수련자들의 가부좌 동작을 매우 좋아했다. 그의 요청에 따라 수련자들은 단체로 파룬궁 제5공법을 시연했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파룬궁 정보의 날’ 소식을 본 현지 주민들이 몰려와 파룬궁을 지지하는 서명을 했다. 웨이언부란터(Wiuen Brant)와 그의 아내는 모두 이미 은퇴했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알려준 진상을 들은 후 서명으로 지지했다. 부란터는 진선인

원리는 매우 중요하며 사람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원리라고 여겼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담 광장(Dam Square)은 예로부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장소였다. 11월 9일, 파룬궁수련자들이 담 광장에서 중공의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자닌 마이어(Jeanine Meijer) 박사는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의사이자 의학 고문이다. 그녀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행위에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했다. “의료윤리는 이렇게 명확하고,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걸 모든 사람의 의료윤리를 넘어선 것이고, 모든 사람의 도덕적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끔찍한 행위는 인간성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학대이고, 억압이며, 공포입니다.” 그녀는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제지 촉구 청원서를 보았을 때,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고 느꼈다.

11월 15일 토요일,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오클랜드 비즈니스 베이(Commercial Bay) 광장에서 집회와 연공 활동을 개최했다. 수련자들은 수련의 평온함과 정념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이 중공 박해의 잔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 수련이 가져다주는 심신이 제고되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전 오클랜드 시민자유위원회 위원장 배리 윌슨(Barry Wilson)과 인권 변호사 케리 고어(Kerry Gore)가 현장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했으며, 이들은 뉴질랜드 정부, 국제 조직 및 사회 각계에서 중공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에 관심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윌슨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불법 감금, 고문, ‘재교육수용소’ 그리고 가장 끔찍한 생체장기 적출과 같은 심각한 박해를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폭로해 온 이러한 장기적인 견지는 매우 소중하다고 밝혔다.

11월 8일, 서호주 퍼스 남부 교외 칼리스타(Calista)에서 ‘퀴나나 로터리 커뮤니티 박람회(Rotary Kwinana Community Fair)’가 개최됐다. 이 박람회는 로터리클럽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로, 당일 100여 개가 넘는 부스가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부스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시연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파룬궁

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공이 파룬궁을 어떻게 박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파룬궁수련자들의 반(反)박해 활동을 지지하는 청원서에 서명했으며, 더 많은 이들이 중공의 만행에 꾸준히 주목하게 되도록 파룬궁수련자들이 꾸준히 진상을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크리스(Kris)와 게리(Gary)는 청원서에 서명하며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크리스는 “저는 약 20년 전부터 파룬궁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캔버라 국회의사당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수백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정말 크고 아름다워서 감동으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게리는 “사람들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박해에 대해 직시해야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11월 9일 아침, 파룬궁수련자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의 ‘차 없는 날(Car Free Day)’ 행사에서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한 전국적인 인터넷 매체는 파룬궁수련자들의 당일 활동을 보도하며 “자카르타 주민들이 시끄러움 속에서 평온을 찾다—파룬따파수련자 그룹이 ‘차 없는 날’의 붐비는 인파 속에서 조용히 가부좌하고 있으며, 그들은 바쁜 수도 중심에서 평온함을 발산하고 있다”라고 썼다. 수련자들은 안내 부스를 설치해 5가지 공법을 시연하고 시민들에게 파룬따파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 많은 행인이 걸음을 멈추고 수련자들의 연공 모습을 지켜봤으며, 일부는 영상을 촬영하고 일부는 부스에 들러 파룬따파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봤다. 공법에 대해 알게 된 후 즉시 파룬궁수련자들의 단체 연공에 합류한 사람도 몇몇 있었다.

11월 15일, 일본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열린 ‘오엔 락이치’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무료로 연공을 지도했다. 대부분의 시민은 체험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피로가 사라졌다’, ‘매우 편안했다’고 소감을 밝히며, 파룬궁이 전하는 ‘진선인’의 가치에 공감을 표했다. 처음으로 연공을 체험한 시노다는 “처음 배우는 것이었지만 지도 방식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 초보자도 안내에 따라 편하게 따라할 수 있어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진선인의 가치관이 더 널리 전해진다면 사회적 다툼과 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일본 히로시마의 파룬궁수련자들은 히로시마시 도시건설 시민교류빌딩에서 열린 ‘도시건설 시민교류 축제’와 히로시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축제 2025’ 두 행사에 연이어 참가했다. 두 행사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무대에서 요고(腰鼓) 춤을 공연하고 파룬궁의 다섯 가지 연공을 시연했다. 또 부스를 설치해 공법교습 활동을 펼치며 중공이 26년간 파룬궁을 계속 박해해 온 사실을 알렸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랴오닝성 진저우시 베이전시 뤼양진의 파룬궁수련자 6명이 6월 3일 베이전시 공안국과 뤼양진 파출소에 의해 납치, 감금돼 모함당했으며, 현재 이미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뤼쓰(呂四)촌의 한옌원(韓豔文)은 억울하게 2년 형, 터우타이쯔촌의 마오구이쥘(苗桂君)은 불법적으로 13개월 형, 텐슈펀(田秀芬)은 11개월 형, 자오춘옌(趙春豔)은 11개월 형, 샤샤오촌의 리수전(李淑珍)은 불법적으로 11개월 형, 왕위란(王玉蘭)은 1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진저우시 관할 각 현·시 공안국은 파출소 경찰과 결탁해 현지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대규모 납치와 가택수색을 감행해 적어도 36명이 납치됐다. 베이전시에서는 8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뤼양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으며, 그중 6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진저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모함당했다. 6명의 파룬궁수련자는 모두 여성으로, 그들은 뤼양진 뤼쓰촌의 한옌원, 터우타이쯔촌의 자오춘옌, 텐슈펀, 마오구이쥘, 샤샤오촌의 리수전, 왕위란이다.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파룬궁수련자 푸홍(付鴻)은 2024년 11월 20일 친황다오시 기차역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납치돼 친황다오 구치소에 갇혔다. 2025년 8월 21일, 친황다오시 푸닝구 법원은 푸홍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주심 판사 린쌍취안(林雙全)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앙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푸닝구 검찰원 여검사 쑤다윈(孫達運)이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푸홍을 모함하도록 고의로 방임했다. 당일 린쌍취안은 결과를 선고하지 않았다. 최근, 푸닝구 법원이 푸홍에게 불법적으로 5년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푸홍은 이미 항소했다.

허베이성 탕산시 첸안시 파룬궁수련자 귀웨샤(國月霞)가 2025년 3월 16일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경찰에게 납치돼 구금됐다. 2025년 6월 24일 친황다오 푸닝구 법원이 귀웨샤에게 불법 재판을 열었다. 8월 하순 변호사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귀웨샤가 불법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녀 본인이 이미 상소했다고 알렸다. 귀웨샤는 현재 여전히 친황다오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다.

산둥성 자오저우시 파룬궁수련자 류자오홍(劉兆宏)은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25년 5월 19일 납치돼, 5월 20일 자오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5년 10월, 류자오홍은 불법적인 재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는 지난 남자 감옥에 불법 감금돼 있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류자오홍은 정신병원, 세뇌반 등에 감금돼 박해를 당했다. 그는 2003년 납치돼 모함을 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충칭시 파룬궁수련자 중팅쥐(鍾庭菊)가 납치된 후, 카이저우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이후 그녀는 소식이 없었다. 최근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이미 7개월 전인 2025년 4월 12일, 중팅쥐는 카이저우구 법원에서 비밀리에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중팅쥐, 여성, 1962년 2월 22일생, 올해 63세, 충칭시 카이현 다더향 둥핑촌 거주. 중팅쥐는 대법 수련 전에,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괜찮은 곳이 없었다. 1999년 여름, 그녀는 단 4일간 파룬궁을 연공했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고 눈도 잘 보이게 됐다. 점차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하면서 중팅쥐의 몸은 건강을 회복했다. 중팅쥐가 대법 속에서 수련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인 1999년 7월 20일, 장씨 집단은 파룬궁에 대한 광기 어린 박해를 시작했다. 그녀는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여러 차례 중공의 박해를 당해 불법 감금, 1년 강제노동, 4년 반 형을 선고받았다.

5년간의 진상 현수막 붙이기와 수련

글/ 중국 허베이(河北)성 대법제자

[명혜망] 2015년 우리 법공부 팀 수련생들은 진상 현수막을 정기적으로 붙이는 ‘진상팀’을 결성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저희의 이 중생구도 항목은 약 5년간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진상 현수막을 붙인 과정은 악을 제거하고 세인을 구원하는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팀 내 수련생들이 법 속에서 실질적으로 수련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를 맞이해 저희는 진상 현수막을 붙여 중생을 구했던 이 기간의 경험과 깨달음을 글로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시작

2015년 여름, 한 수련생이 장터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파출소에 납치되었습니다. 저희 수련생 몇 명이 차를 몰고 수십 리 떨어진 파출소로 가서 정념을 발해 그 수련생을 구출했습니다. 납치됐던 수련생은 당일 오후에 파출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같이 갔던 수련생이 진상 스티커를 좀 가져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가져온 진상 스티커를 걸어가면서 모두 다 붙였습니다. 나중에 관련 수련생들이 모여 교류할 때 “우리 팀을 결성해서 정기적으로 진상 현수막 붙이는 항목을 하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했고, 모두 이 생각에 찬성해서 저희는 매주 차를 몰고 나가 진상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체(整體) 협조로 성숙해지다

처음에는 진상 스티커를 붙였는데 나중에는 스티커가 너무 작다고 느껴서 좀 더 큰 진상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생들은 우리를 위해 큰 진상 현수막을 만들어줬는데, 천지행(天地行)에서 소개한 실크스크린 인쇄 기술을 채택해 인쇄한 글자는 햇볕과 비에 강했습니다. 조금 얇은 커다란 노란색 색종이를 밑바탕 종이로 사용해 진상 현

수막을 만들었는데, 큰 것은 20cm×120cm, 20cm×100cm, 작은 것은 15cm×60cm 등 다양한 크기가 있었습니다.

이 종이 현수막은 자체 제작한 풀로 붙여야 했습니다. 밀가루를 끓여 익힌 후 설탕을 넣고, 겨울에는 소금도 좀 넣어야 했습니다. 잘 끓인 후 찬물을 좀 넣고 저어서 끓이면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었습니다. 붙일 현수막의 크기, 수량에 따라 풀의 사용량을 결정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번에 다 썼습니다.

저희는 해가 진 후에 차를 몰고 나가 마을과 도로 양쪽에 진상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120~150장을 붙였는데, 큰 것은 좀 적게, 작은 것은 좀 많이 붙였습니다. 바람이 약할 때는 빗자루를 사용해 붙였습니다. 풀을 잘 바른 현수막을 빗자루 위에 걸쳐서 전봇대나 평평한 곳에 대고 위를 누르고 아래를 당긴 다음 평평하게 쓸어주면 잘 붙여졌습니다. 붙일 때는 수련생 모두 진상 현수막을 최대한 바른 방향으로 붙이도록 주의했습니다.

진상 현수막을 붙일 때 수련생들은 분업이 명확했습니다. 붙이려고 준비할 때, 차 안에 있는 수련생 한 명이 먼저 평판 위에 현수막을 놓고 풀을 바르면, 뒷좌석 왼쪽 수련생과 앞쪽 조수석 위치의 수련생이 풀을 잘 바른 현수막을 빗자루 위에 받쳤습니다. 운전하는 수련생이 적절한 위치를 찾아 정차하면, 문을 연 수련생이 붙이고, 붙인 후 운전사는 재빨리 출발해 다음 위치를 찾아 계속 붙였습니다. 작은 현수막은 10~20초, 큰 현수막은 20~30초면 다 붙여졌습니다.

빗자루를 사용하면 보통 2~3미터 높이까지 붙일 수 있어 비교적 눈에 잘 띄고 훼손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신축 가능한 봉도 사용해 4~5미터 높이까지도 붙였지만,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보기 불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0~60분이면 현수막 100개를 다 붙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고 속도가 빨라 광범위하게 붙일 수 있었고 안전했습니다.

진상 현수막은 보통 전봇대, 통신 기둥 또는 일부 공용 벽면에 붙였습니다. 장터, 광장, 슈퍼 등에서는 전봇대 정면에 붙여 장소나 도로를 향하게 했습니다. 차가 많은 큰 거리나 공로는 주로 전봇대 오른쪽 측면에 붙여서 차량이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의 동서 방향 주도로에는 보통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저희는 남북 방향 도로에 붙였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보통 전선이나 통신선을 따라가고 길가에는 반드시 전봇대가 있었으며,

대부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었지만 감시 상황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가끔 A3, A4 크기의 작은 진상 자료도 붙였는데, 내용은 모두 명혜망에서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레이저 프린터와 수입 컬러 토너를 사용해 인쇄했기에 햇볕과 비에 강했습니다. 작은 진상 자료는 높지 않게 붙여서 보기 편했습니다. 저희는 때때로 작은 진상 자료를 스티커로 만들었는데, 실외용은 점도가 높고 두꺼운 뒷면 접착 종이를 사용했고, 겨울에는 온도 계수가 낮은 뒷면 접착 종이를 선택했습니다.

명혜망에서 발표된 컬러 진상 스티커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세인들이 진상을 깨닫고 구원될 수 있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수련생이 실외용 사진 인쇄기로 잘 인쇄해 스티커로 만들어 줬는데, 이 역시 햇볕과 비에 강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수련생들이 우리 팀에 참여하면서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 씩 나가 진상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악을 제거하고 정념의 장을 펼치다

저희가 붙인 진상 현수막에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세계에는 진선인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 삼퇴(三退-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해야 평안을 보장받는다’, ‘장쩌민(江澤氏)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등이 있었는데,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진상팀은 지속적으로 진상 현수막을 붙여 왔고, 붙인 수량과 방문한 마을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인들이 이 진상 현수막을 보는 것은 그들 머릿속의 악령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학교 근처에 진상 현수막을 붙였는데, 수련생 한 명이 20cm×120cm 현수막을 붙이고 차에 오른 후 뒤돌아보더니 웃었습니다. 이 수련생은 천목(天目)이 열려 있었는데, 큰 현수막이 번쩍이는 금빛을 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악을 진압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대법 위력의 체현이었습니다.

어떤 마을의 세인들은 대법과 인연이 깊어서 저희가 마을에 붙인 진상 현

수막이 오랫동안 보존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바람, 햇볕, 비로 인해 현수막 밑바탕 종이는 없어졌는데도 인쇄된 글자는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풀에 설탕을 넣은 효과가 좋아서 떼어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몇 달 후에 다시 가 봐도 대부분의 진상 현수막이 여전히 붙어 있었는데, 이는 세인들이 스스로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생들은 또한 사부님의 가지(加持)와 대법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매년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할 때 저희는 축하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때로는 작년에 붙였던 ‘세계 파룬따파의 날’ 축하 현수막이 여전히 온전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대법의 자비와 장엄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이웃 현에 1만 명 규모의 큰 묘회(廟會, 절 축제)가 있었는데, 사람이 매우 많았고 면적이 넓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몇 개 진상팀이 갔습니다. 저희는 현지 수련생들과 협조했는데, 각 차량에 현지 수련생 한 명을 길 안내자로 배치해 묘회 근처와 묘회로 오는 길가에 모두 진상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우리 소그룹은 그날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가 넘도록 붙였는데, 약 500여 개를 붙였습니다. 각 소그룹은 구역과 방향을 나눠서 붙여 강력한 정념의 장을 펼쳤습니다. 길 안내를 맡았던 현지 수련생들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다가 나중에는 앉아만 있을 수 없다며 우리와 함께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정체적으로 협조해 공동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한동안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이 많은 사악한 표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는 진상 현수막을 붙인 후 이 사악한 표어들을 제거하러 갔습니다. 때로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고, 때로는 외벽 도료를, 때로는 유성 페인트를 사용했으며, 잘라낼 수 있는 것은 벽지 칼이나 낫으로 잘라냈습니다.

한번은 파출소 담장에 악당의 표어가 쓰여 있어서 저희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당(黨)’ 자를 칠해 지웠습니다. 며칠 후 지나가다가 보니 거리 전체에 사악한 표어가 사라지고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는 세인들에 대한 사악의 세뇌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 관련 인원들도 자신을 위해 좋은 미래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정부 기관의 대문 담장에 악당의 사악한 표어가 쓰여 있어서 많은 행

인이 오가며 세인들을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黨)’ 자를 칠해 지우자, 며칠 후 그들이 다시 복구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가 또 칠했는데 다시 복구됐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꾸준히 제거하는 동시에 정념을 발해 배후의 사악한 요소를 해체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칠해진 ‘당’ 자 위에 전통문화 그림을 걸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벽 전체가 하얗게 칠해졌고, 사악한 표어도 가려 놓았던 그림도 사라졌습니다. 표어 배후의 사악이 해체됐고, 악령이 세인들을 해치는 것을 막았으며, 세인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하나의 바른 장을 열어 준 것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가지해주시고 사악의 교란을 해체하시다

몇 년 동안 진상 현수막을 붙이는 과정에서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사부님의 보호 아래 수련생들은 정념정행으로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한번은 진상을 모르는 세인이 우리를 신고해서 경찰차가 빠르게 달려와 우리 차 앞에 길을 막아섰습니다. 수련생 몇 명도 마침 현수막을 다 붙이고 차에 탄 참이었습니다. 운전하는 수련생이 먼저 보고 모두에게 정념을 발하라고 알리는 동시에 재빨리 후진하고, 왼쪽으로 핸들을 꺾고, 기어를 바꿔 가속 페달을 밟아 차가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렸을 때 우리 차는 이미 몇 미터 돌진해 쏜살같이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아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당시 경찰이 우리 차가 마치 날아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부님의 보호와 가지에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외진 곳일수록 진상이 더 필요했습니다. 한번은 반 산악 지대 마을에 진상 현수막을 붙이러 갔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봤던 길이라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상 현수막을 붙일 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지만, 그 길의 종점이 산속이라 저희는 수십 리를 들어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붙여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걸어가면서 계속 붙였습니다.

어떤 슈퍼 근처에서 승합 경찰차 같은 것이 우리 앞에서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저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붙여 어느 향진(鄉鎮) 입구에 이르렀을 때, 운전하는 수련생이 갑자기 “우리 마을 안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도 구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걸어가

면서 붙였고 마을을 가로질러 나왔습니다. 향진 출구에 도착해 저희가 막 차를 세우고 현수막을 붙이려는데, 승합 경찰차 한 대가 우리 차 오른쪽에 나란히 섰습니다(우리는 길 왼쪽에 세우고 붙이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수련생이 “차에 타세요!”라고 소리쳤고, 우리 차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돌진해 나갔고, 경찰차는 한참을 쫓아왔습니다. 저희는 수십 리를 달려 남은 진상 현수막을 다 붙인 후에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모두 이 일에 대해 교류하면서 안으로 찾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를 깊이 느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경찰차는 향진 입구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놔는데, 그곳은 바로 도로가 굽어지는 곳이라 건물에 가려져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마을 안의 작은 길로 가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피해 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길을 따라 계속 갔다면 그들이 설치한 덫에 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빠져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향진 출구에서 다시 우리를 쫓아와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의 보호 아래, 저희는 안전하게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의 은혜에 절을 올리며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은, 저희가 한 마을에서 진상 현수막을 붙이고 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의 주도로는 공사 중이라 깊게 파여 차가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니 현수막을 붙이지 말까 했지만 이미 돌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차에도 문제가 생겨 실린더 헤드 개스킷이 손상돼서, 비가 오고 차 속도가 느려지자 빙빙 돌아 나가지 못하고 차가 과열됐습니다. 차에 있는 물로 온도를 식혔는데, 나중에는 물도 다 써버렸습니다. 무척 힘들게 운전해 나왔지만 차가 다니는 길을 저희는 전혀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왔는데 그 운전자가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줘서 저희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큰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이미 아주 늦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길 잃은 제자들을 또 한 번 구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수련 속에서 심성을 높이다

수련 중 나타나는 많은 일은 모두 수련인의 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상 현수막을 붙이는 수련 과정에서도 저희의 적지 않은 사람마음이 드러났는데, 비교적 두드러진 것은 두려움, 환희심, 원망심, 자기를 증명하려는 마음 등이었습니다.

한번은 저희가 중공 악당의 사악한 표어를 제거할 때, 사악한 표어에 ‘당원(黨員)’이라는 두 글자가 있어서 ‘당(黨)’ 자를 칠해 지워야 했는데, 이 항목에 막 참여한 한 수련생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페인트를 뿌리고 차에 올라와 보니 ‘원(員)’ 자를 칠하고 ‘당’ 자는 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련 속에서 이 수련생은 끊임없이 심성을 높여 두려움과 사심을 수련해 버리고,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는 일을 착실히 해 나갔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자신이 현수막을 잘 붙이고, 빠르고 정방형이며, 단단히 눌러서 붙였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 제대로 못 한 곳을 보면 “여긴 안 돼”, “저긴 안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교류 중에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고, 점차 사람마음을 수련해 버렸으며, 심성은 점점 법의 요구에 부합해 갔습니다.

차 안에서 물을 바를 때 차 안 곳곳과 문손잡이에 물이 묻을 수 있어서, 수련생들은 최대한 주의하고 젖은 걸레를 가져와 모두 자발적으로 차를 닦았습니다. 빗자루에도 물이 묻어서 마르면 아주 딱딱해져서 쓰기 불편했습니다. 수련생들은 매번 돌아와서 씻었는데, 먼저 물에 담가 부드러워진 후 씻어야 해서 청소하기가 꽤 번거로웠지만, 수련생들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설탕, 소금은 사용량도 적지 않았지만 팀의 두 수련생이 계속 묵묵히 희생했습니다.

진상 현수막 붙이기 5년 수련의 길 폭풍우 속에서 사부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해주셨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심성 마찰과 제고 속에서 사부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마음을 다 쓰셨습니다. 제자들의 아주 작은 제고조차도 사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사부님의 법은 내 정념의 근원

—세뇌반은 해체되고, 노동수용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8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69살이며 농촌에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뒤, 저는 극도로 이기적이던 사람에서 ‘무사무아(無私無我)’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저는 반본귀진(返本歸真,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의 밝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20여 년 동안 제가 가장 깊이 체득한 점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법은 수련자가 정념을 얻는 근원이므로, 법공부를 잘해야만 크고 작은 모든 난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저의 작은 수련 체험을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파룬따파가 날 변화시키다

수련하기 전 저는 성질이 불같고 매우 고집스러웠습니다. 부모, 친척, 이웃 과도 자주 다투었고, 어떤 일이든 제가 반드시 앞서야만 했습니다. 싸움이 나면 끝까지 이겨야 직성이 풀렸고, 밭두렁이나 작은 이익이라도 손해 보면 절대 참지 못했습니다.

싸울 때는 더 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올케와 다른 친척과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졌는데, 저 혼자 두 사람을 동시에 때릴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저는 싸움도 잘 하고 욕도 잘 해서 사람들은 모두 저를 두려워했고 뒤에서는 “저 사람은 너무 사나워서 건드리면 큰일 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그런 말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스스로를 대단한 ‘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998년 8월, 파룬따파가 우리 고장에도 전해졌고 저도 함께 법공부하고 연공하러 갔습니다. 《전법륜(轉法輪)》을 배우면서 저는 마치 눈이 환하게

트이듯 깨달았습니다. 원래 이 우주는 ‘법’이 있는 곳이며, 우주의 가장 근본 특성은 ‘진선인(眞·善·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대법의 법리에 따라 선한 사람이 돼야만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착한 사람이 돼야겠다. 대법이 요구하는 대로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선하게 대하고, 다투지도 화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기꺼이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이웃 관계가 좋아졌고 가정도 화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니 정말 달라졌네.”

더 많은 사람이 법을 얻고 수련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법을 알렸고 우리집은 단체 법공부와 연공, 그리고 공법교육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구든 찾아오면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가까운 곳, 먼 곳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아무 대가 없이 식사까지 준비해 모두가 편하게 법공부하고 연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시기 사람들은 법공부와 연공에 열정적이었고 많은 이들이 고질병이 나았습니다. 저도 다년간의 중이염, 위장병, 류머티즘, 빈혈, 부인과 질환 등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예 다른 사람이 됐네.”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가운데 저는 ‘불광이 널리 비추는(佛光普照)’ 자비롭고 평화로운 느낌을 진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정법 수련 길에서,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저는 법에서 오는 정념을 바탕으로 모든 크고 작은 난관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노동수용소의 ‘전향’ 강요를 깨뜨리다

2000년 11월, 저는 1년 반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지방 여자 노동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노동수용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강제로 ‘전향’을 시키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바오자(앞잡이 재소자)’라는 자들은 갇은 회유와 꾀임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온 사람 수백 명 전부 다 전향했어. 당신도 빨리 전향해. 전향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있고, 교류도 하

고, 법공부도 할 수 있어.” 그들은 이성을 잃고 사부님과 대법을 비방하며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부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파룬따파는 그렇게 좋은 법인데, 도대체 어디로 전향하라는 거지? 사부님을 배신하고 대법을 배신하는 것은 곧 파룬궁을 박해하는 악한 무리와 한패가 되는 일이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저는 시비를 분명히 하고, 선악을 똑바로 구분했으며, ‘전향’은 절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강제로 전향을 강요하는 이 박해를 어떻게 맞서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부님의 법을 떠올렸습니다. “어떠한 어렵고 힘든 환경 하에서도 여러분은 모두 마음을 온건히 가져야 한다. 하나의 부동(不動)이 만(萬)가지 움직임을 제약하는 것이다!”(미국 중부법회 설법)

“당신들의 수련은, 대법(大法)에 대한 견정한 그 마음이 반석같이 단단하여 대법을 강력하게 안정시켰다.”(뉴질랜드법회 설법)

그 사악한 검은 소굴 같은 노동수용소 속에서, 사부님의 법은 제 마음에서 대법제자가 갖추어야 할 정념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바오자’들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쓰라고 해도, 무엇에 서명하라고 해도 제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욕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오자들이 말했습니다. “전향하지 않으면 신장(新疆)의 인적 드문 고비사막으로 보내 버릴 거야. 앞으로 파룬궁을 하나도 남김없이 말살해 버릴 거야.”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 한 사람이라도 수련하고 있는 한 파룬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흑독한 고문, 감옥경찰, ‘바오자’, 감시자들은 저를 전향시키기 위해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매일 벽을 마주하고 10여 시간씩 서 있기, 한여름 띄약별 아래에서 하루 종일 서 있기,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기 등입니다. 어느 날은 도저히 참지 못해 허락 없이 화장실을 갔다가 감옥경찰에게 전기고문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제 손 호구(虎口, 엄지와 검지 사이)에는 그때 생긴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작은 감방에 가두고 모기와 벌레에 뜯기게 하기, 세뇌 영상 시청을 거부한다고 감옥경찰 부대장에게 뺨맞기, 과중한 생산량을 못 채우면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벌서게 하기 등 끝

없는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련자는 정념(正念)을 말해야 하고, 사부님의 법이 바로 제 정념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도, 어떤 회유가 얼마나 달콤해 보여도, 저는 항상 사부님의 법으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부님의 법을 묵송했습니다.

“대법이 몸을 떠나지 않으니 마음에 真善忍(쩐싼런) 있네 세간의 대나한(大羅漢) 신도 귀신도 몹시 두려워하네”(홍음-위덕).

“대법을 굳게 수련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나니 층차를 제고함이 근본이로다 고함 앞에서 진성을 보나니 공성원만 하여 불도신이 되도다”(정진요지2-진성을 보다)

저는 법의 위력이 무한하고, 법에서 나오는 정념은 절대 깨뜨릴 수 없음을 뗏속 깊이 느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와 가지(加持) 아래, 저는 끝까지 바른 신념을 지키고 사악한 전향 박해를 완전히 깨뜨렸으며, 2002년 3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이다’라고 서명하다

2001년 5월 13일, 노동수용소는 전향하지 않은 수련생들에게 대법을 모독·비방하는 영상물을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사부님의 생신이다. 우리 제자들이 사부님을 가장 그리워하고 감사드리는 특별한 날이다. 어떻게 이런 사악한 것들을 순순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정념이 치솟아 저는 벌떡 일어나 영상 보던 작은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크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부님의 생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라고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노동수용소에서는 파룬궁을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에 모두 이름을 서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법을 수호하는 것이 대법제자의 책임이다. 나는 오직 대법이 좋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데에 서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현수막에 ‘파룬따파는 정법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감시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이제 제출할 수 없게 됐구나. 이 글자를 검게 칠해 없애야 해. 상부에서 보면 큰일 나. 추궁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 누군가 허겁지겁 악명 높은 잔혹한 감옥 경찰 대장을 부르러 갔습니다.

잠시 후 감옥경찰 대장이 오더니 오히려 제게 엄지를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 잘했다.” 그 순간 박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악한 세뇌 비디오테이프를 폐기하다

어느 날 큰비가 내렸습니다. 전향하지 않은 수련생들은 처마 아래에 앉아 있었고, 발 앞쪽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차 흘렀습니다. 한쪽 책상 위에는 세뇌 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러 간 틈을 타, 저는 테이프를 모두 안아 물이 가득 찬 도랑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수련생 한 명과 함께 다시 건져 올려 테이프를 한 조각 한 조각 찢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는 우리에게 테이프 값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배상하든 말든, 보복하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두려움도 내려놓았고, 걱정도 내려놓았고, 심지어 생사도 내려놓았다.’ 결국 이 일은 흐지부지 끝났고 그 중대(中隊)에서는 다시는 그런 세뇌 비디오를 틀지 않았습니다.

정념으로 세뇌반을 해체하다

2010년 8월 어느 날, 저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중 거리사무소 직원과 정체불명의 7~8명이 길거리에서 저를 가로막고 강제로 납치해 승합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백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웃 현의 산속, 한 숙박업소에 차린 세뇌반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희 지역의 다른 두 명의 수련생도 동시에 납치돼 있었습니다.

세뇌반은 숙박업소 2층에 설치돼 있었고 큰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감금된 파룬따파 수련생들은 단독 방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고, ‘감시자’가 하루 24시간 밀착 감시했습니다. 매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비방·모독하는 영상과 음성을 강제로 들려주고, 세뇌반이 요구하는 대로 이른바 ‘경험서’를 쓰라고 강요하며, 다시는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도록 종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학습’이었습니다.

사·현·구·향진의 각급 정부와 정법위 사람들이 차례로 와서 ‘재교육 한다’는 명목으로 세뇌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수련생으로서의 정념으로 대응했습니다. 파룬따파 수련생의 사명은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진상을 말해 그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저는 반복해서 진상을 알렸고,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이 조작이라는 사실과 제가 파룬따파를 수련하며 신체와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현 정법위 ‘610’ 책임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해 동안 저희 집이 겪은 박해와, 중공의 거짓·악·투쟁[假惡鬭]이 인민에게 끼친 재난을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공산당이 인민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지금은 또 파룬궁을 박해해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듣기만 했고, 그 이후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정념을 발해 세뇌반의 박해를 해체했습니다.

제가 감금되면서 동시에 불법적인 가택수색도 이뤄졌습니다. 아이는 제 소식을 듣자 외지에서 급히 돌아와 저를 납치한 향진 정부 책임자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며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세뇌반에 끌려갔을 때, 구 ‘610’ 책임자가 호텔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호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납치자들은 저를 끌고 밀며 결국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구 ‘610’ 책임자는 다가와 제 등 가운데를 꿰뚫을 듯이 발로 세게 걷어차고, 그들에게 저를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후 응보를 받아 중병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제 가족이 항의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저희 친척에게 “당신네 ○○에게 전해라. 지금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뇌반에는 다른 현의 수련생들도 불법 감금돼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정념으로 박해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뇌반은 파룬궁수련생 ‘전향’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저희는 13일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노동수용소 “이 사람은 안 받습니다. 데리고 돌아가세요”

2010년 10월 어느 날, 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610’ 경찰이 제가 일하던 은행의 청소 작업장에서 저를 납치했습니다. 이어서 병원으로 끌고 가 강제로 건강검진을 시켰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왜 합니까? 장기적출하려고요?” 경찰은 “1년 반 강제노동을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진 후 저를 구치소에 불법 수감했고, 저는 항의하기 위해 단식했습니다. 사흘 뒤, 구 국보 ‘610’ 경찰 몇 명이 저를 노동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사흘째 단식 중이었지만 저는 배고픔에 개의치 않고, 가는 길 내내 계속 진상을 말하며 선하게 권했고, 그들이 박해를 멈춰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복을 쌓기를 바랐습니다.

노동수용소에 도착하자 다시 강제로 건강검진을 했고, 결과가 모두 정상이 나오자 저를 노동수용소 접수실로 데려갔습니다. 서류 몇 장을 처리한 후 제게 서명을 강요하고, 서명하면 바로 안에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노동수용소는 파룬따파 수련생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이것은 사부님의 안배가 아니다. 나는 절대 악의 박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박해를 반대하고, 구세력의 모든 사악한 안배를 부정해야 한다.’ 저는 불법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하며 주먹을 짹 쥐고 서명도, 지문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네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달려들어 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제 손을 비틀며 강제로 지문을 찍으려 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며 인주통을 발로 차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노동수용소는 인간 세상의 지옥입니다! 여기서 우리 많은 파룬따파 수련생이 박해로 죽었습니다! ○○○, 61세, 똑똑하고 능력 있고 참 예쁜 분이었는데 이 노동수용소에서 박해받아 죽었습니다. 또 ○○○도 여기서 죽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박해로 죽었으니 억울하기도 억울한 것이며, 이는 천리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국보 ‘610’ 경찰들은 기진맥진해 숨을 헐떡였고, 서명과 지문 강요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수용소에서 제 접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경찰이 접수실에서 노동수용소 내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받습니다. 데리고 돌아가세요.” 경찰들은 하는 수 없이 저를 되돌려 태웠지만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고 노동수용소 책임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다시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수용소 측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마침 제복을 입은 경찰(수용소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달려가 다시 요청했지만 그 노동수용소 경찰은 말했습니다. “위에서 이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받습니까? 돌아가세요.” 제가 차 안에서 그들이 계속 교섭하는 동안, 저는 내내 정념을 받았습니다.

구치소를 떠난 뒤 사흘 동안 단식해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정념을 유지했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느슨해지면 사악한 교란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들어가라. 안에 들어가야 친척들이 면회도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스치자 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구 정법위 ‘610’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와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에 노동수용소에 도착해, 오후 네·다섯 시가 되도록 몇 시간이나 끝었지만 결국 저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하다

수련 중 여러 차례의 사련을 겪으며, 저는 사부님께서 왜 거듭 법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지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공부의 중요성을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도, 당신은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한 번도 늦춘 적이 없네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유지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법공부를 통해, 파룬따파 수련생이 세상에 온 사명이 바로 사람을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중공은 해체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일이고, 중공의 당·단·대에 가입한 사람들은 악당과 함께 도태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구합니까? 오직 파룬따파 수련생

뿐입니다.”

사람을 잘 구하기 위해 저는 교통이 편한 도시로 나가 일했습니다. 저는 동서(수련생)와 짝을 이루어, 셋방에서 직접 진상 자료를 만들어 스스로 배포했습니다. 저희는 장이 서는 곳곳을 찾아다니며 진상 자료를 나누어 주었고, 한 사람당 한 번에 170~180부씩 들고 나갔습니다. 다 나누어 준 후 시간이 있으면 직접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거나, 진상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근래에는 감시카메라가 매우 많지만 저는 그것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부님을 도와 정법을 하는 파룬파파 수련생이고, 저는 사부님께서 돌보십니다. 인간 세상의 것들은 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왔기에 저는 감시카메라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일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지역은 사방으로 점점 넓어졌고, 특히 시골의 외진 지역은 진상 자료를 전하는 수련생이 적다고 들으면 저희가 갔습니다. 어떤 곳은 두 세 번 갈아타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 오토바이 택시를 타면 두껍게 끼입어도 찬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어 내리면 몸이 뽁뽁 얼기도 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고 교통비도 꽤 들어 왕복에 몇십 위안이 필요한 데다가 방세도 내야 했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 먹지는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찐빵 하나 먹고 물을 마시면 충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안 사정으로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시골의 교통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거의 매일 새벽같이 나가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며, 때로는 채소를 팔면서도 사람을 구했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날씨가 어떻든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나갔습니다. ‘문밖을 나서기만 하면, 반드시 수확이 있고, 누군가는 구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농사일을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90여 개의 향진(鄉鎮)을 걸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가끔 도시로 나가 청소 일을 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도 사람을 만

나면 진상을 알렸고, 그 자리에서 삼퇴하는 사람이 몇 명씩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늘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향락·먹고 마시고 노는 즐거움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구하는 일을 잘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느낍니다. 하루에 몇 명을 구하든, 사람을 구했다면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시기에는 곳곳이 봉쇄됐지만, 그것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방법을 찾아 사람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때는 거리와 골목이 텅 비어 더욱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빨리 구해야 한다,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저는 동서와 짝을 이루어 자비로 사람을 구하는 마음으로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연(善緣)이 맺어졌습니다. 특히 대면해서 진상을 알릴 때, 진상을 알고 구원된 사람들은 저희에게 너무도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어이 돈을 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꼭 음식을 사주려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싶어 하거나, 형제자매가 되자고 하는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고맙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해주신 분은 대법 사부님이십니다. 파룬따파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사부님과 파룬따파가 저를, 한때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사람에서 오로지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중생이 구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신의 길을 걷는 파룬따파 수련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상은 저의 작은 수련 체험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자비로운 선념으로 진상을 알리다 (상)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세상에 전해져 수많은 사람이 건강한 신체를 얻었고 수많은 가정 갈등이 선해(善解)됐습니다. 저는 1998년 말에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한 노(老)대법제자입니다. 수련 후, 저를 10년 가까이 괴롭혔던 고질적인 전신 신경성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저는 매일 병 없이 몸이 가벼운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법공부를 통해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원(恩怨)에는 모두 원인이 있음을 명백히 알게 됐고, 고향의 백모님과 왕래하지 않고 지내던 오랜 원망도 선해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온 가족 몇 대(代)는 모두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중공 악당은 세인을 중독시켰고 ‘천안문 분신’ 거짓 사건을 날조했으며, 전국의 선전기구를 동원해 대법을 모함했고, 신문과 TV는 거짓말로 하늘과 땅을 뒤엎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대법이 악당에게 모욕당하자 제 마음은 몹시 조급해 늘 진상을 모르는 세인에게 진상을 똑똑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일이 매우 바빠 낮에는 거의 시간이 없었고, 저녁에도 7~8시까지 야근해야 했으며 어떨 때는 10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수련생들이 모두 바쁘게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몹시 조급했습니다. 수련생은 제 근무 시간이 빠듯한 것을 알고 진상 자료를 만들어 놓고, 제가 시간이 될 때 함께 여러 단지에 가서 진상 자료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3년 가까이 지속하며 저는 수련생과 호흡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늘 수련생이 저를 배려하게 만드는 것이니, 저는 마땅히 제 수련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제자는 정법이 당신들에게 부여한 위

대한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며, 더욱이 이 부분 중생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은 이미 그들이 능히 미래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므로 모든 대법제자, 신노 수련생들은 모두 행동으로 전면적인 진상 알리기를 시작해야 한다.”(정진요지3-사람 마음을 내려놓고 세인을 구도하자)

저는 이전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 다른 사람이 신고할까 봐 걱정돼 제 주변에서는 진상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접촉하는 수많은 고객 역시 모두 저와 인연 있는 사람이니 저는 마땅히 이 집단에 진상을 알려야 하며, 밖에 나가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데만 국한돼서는 안 됐습니다. 깨달았으면 바로 행동에 옮겨야 했습니다. 아래는 제가 직장 생활 속에서 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집안일을 이야기하다 진상을 알게 되다

젊은 여성 샤오리는 제 고객 중 한 명인데, 한번은 우리 회사에 왔다가 업무를 마친 후 제게 자기 집안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퇴근 후에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청했고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조용히 그녀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녀와 시댁의 갈등은 이미 욱하고 때리는 정도로 격화됐고, 그녀는 지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난처한 사람이 돼 온종일 성질이 불같고 마음이 몹시 초조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명혜망에서 본 전통문화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녀의 입장에 서서 각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주고, 만약 이야기 속의 처리 방법으로 바꿨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매우 공감하며 제가 말한 대로 자신을 바꿔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퇴근 시간에 그녀가 또 우리 회사로 와서 지난 며칠간의 실천을 이야기했는데, 효과는 좋았지만 늘 자신이 몹시 억울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전통문화 속 인내에 관한 짧은 이야기 몇 개를 들려주며 계속 잘해나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샤오리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약 한 달간 샤오리는 자주 이곳에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와 함

께 있으면 아주 편안하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파룬궁을 이야기하고, 진선인(眞·善·忍)을 이야기했으며, 중공 악당이 어떻게 대법 제자를 박해하는지, 어떻게 ‘천안문 분신’ 거짓 사건을 날조해 국민을 속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오리는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고 중공의 공청단과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샤오리에게 순조롭게 진상을 알린 후 저는 제 직장이 바로 제 수련 환경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인연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모두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는 사람들을 저는 업무상에서 최대한 도왔고, 고객들은 저를 매우 신임하며 마음을 터놓는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순리대로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각 체인점 사장들이 진상을 듣다

우리 회사는 전국 체인이라 매년 여는 연례회의에는 늘 각지 사장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은 줄곧 제게 베이징 본사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사장 회사가 가맹한 이래로 줄곧 제가 관리·경영했기 때문입니다. 광고 편집에서 시장 운영까지, 재무 수지에서 공상(工商)·세무까지, 구매에서 판매까지, 심지어 회사 수도·전기·난방 수리, 직원 채용, 교육, 외부 인사 접대까지 모두 제가 관리하며,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전국 300개에 가까운 체인점 중에서 우리 회사의 경영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번 연례회의 때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다른 회사 사장들은 자주 우리 회사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직원을 뽑았나요?” 10여 년간 각 가맹점 사장들은 저에 대해 줄곧 매우 궁금해하며 늘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기회를 찾아 사장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진상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3일 뿐이고 일정이 비교적 빡빡해 각 가맹점 사장들에게 진상을 알릴 여유 시간이 더는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때, 본사 책임자가 각 가맹점 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회사에 가서 참관하고 배워도 됩니다.” 정말로 사부님의 자비로운 안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장쑤(江蘇)성의 한 사장이 왔는데, 그녀는 우리 회사에서 사흘을 묵었습니다. 낮에는 참관하고 밤에는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공무원이었고 가맹점은 그녀의 부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뽑은 부사장이 갑자기 그녀의 유능한 직원 3명과 많은 고객을 데리고 다른 동종업체로 이직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종업체는 바로 그녀의 회사 맞은편에 있어 매일 출근할 때마다 마주쳤고, 전(前) 부사장은 그녀를 몇 번 보고도 죄책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발적인 말을 해 그녀를 며칠간 앓아눕게 했습니다.

그녀는 말하다 말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부사장을 뽑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합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파룬궁이 불가(佛家)의 고차원 공법이며 제가 어떻게 진선인의 법리(法理)에 따라 행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중공 악당이 파룬따파를 박해하지 않고 모두가 대법을 믿었다면, 모든 은원이 선하게 풀려 그녀 회사 부사장이 그녀를 배신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진상을 명백히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남성 두 명이 왔는데 그들은 장쑤성에서 왔고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면서 점심에 저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인연 있는 사람들인데 진상을 알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승낙했습니다. 식탁에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종업계 사람입니다. 당신이 당신 회사의 운영 모델로 우리가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한 달 보수로 당신의 현재 1년 치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핵심 문제에서 지도만 좀 해주고, 현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돈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에게 저는 파룬따파를 배운 사람이라 매사에 진선인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므로 우리 회사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역지사지해 보라고 청했습니다. “당신들도 자기 직원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 두 사람은 모두 웃었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두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후 이 두 사람은 한 번 더 찾아와서 회사를 설립했다며 저를 고액 연봉으로 초빙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랴오닝(遼寧) 회사에 불일이 있어 갔는데, 선양(沈陽) 사장이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쭈자툰(蘇家屯)이 여기서 먼가요?” 사장은 흠칫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쭈자툰은 왜 묻나요?” 저는 3인칭 시점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쭈자툰 병원에서 몰래 많은 파룬궁수련생을 가두고,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후 시신을 소각했다고 하더군요. 국제사회에서 조사하자 병원 측에서 또 남은 파룬궁수련생들을 밤새 몰래 이송했답니다.”

사장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한참 있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알아보지 마세요. 불뚱이 튈 수도 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파룬궁이 무엇인지, 중공 악당이 어떻게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지, ‘천안문 분신’ 거짓 사건의 의문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장은 명백히 알게 됐고 제가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준 데 대해 감사해 했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 표는 오후여서 저는 아침 일찍 선양 사장과 작별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한 대 잡아 타고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법 진상을 알리고 중공 악당이 어떻게 파룬궁을 박해하고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는지 그 죄악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 기사는 삼퇴했습니다.

저는 우체국에 가서 미리 준비한 진상 편지 10통을 부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다른 곳의 우체국으로 가면서 길에서도 기사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또 진상 편지 10통을 부쳤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택시를 4번 탔는데, 3번은 각기 다른 우체국에 가서 진상 편지 30통을 부쳤습니다. 이 진상 편지들은 모두 제가 있는 지역의 일부 정부 관리와 기업 책임자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대의 택시는 공항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4명의 인연 있는 기사 모두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새로 가맹한 회사가 있거나 어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본사에서는 모두 그들에게 우리 회사로 와보라고 권했습니다. 오기만 하면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진상을 알렸습니다.

사장이 직접 대법의 신기함을 목격하다

우리 회사 사장은 여성인데, 인품이 매우 좋고 학습 및 업무 능력도 모두 매우 뛰어났으며, 매사에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가 있었지만 성격은 비교적 고집이 셧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2년간 일하다가 바로 사직하고 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적잖게 벌었습니다. 그녀는 신(神)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녀에게 대법 진상을 알릴 때 그녀는 자기 집에 ‘전법륜(轉法輪)’이 한 권 있는데, 읽어봤고 줄곧 책장에 꽂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은 그녀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있어 저는 진선인 이 세 글자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쁜 짓은 절대 안 한다고 생각해. 공산당이 수련하지 말라는데 당신은 굳이 수련하고, (선양 사장이 그녀에게 말해줌) 게다가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니, 당신 이렇게 하다간 손해 볼 거야.” 이후 몇 차례 그녀에게 진상을 알릴 때마다 그녀는 모두 핑계를 대고 피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8시 남짓, 사장이 제게 자기 집으로 와서 회사의 급한 일을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길 위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음주 운전 차량 한 대가 맹렬히 방향을 틀어 우리 차를 향해 쏘살같이 달려와 부딪쳤습니다. 두 차가 너무 빨리 충돌하는 바람에 보조석에 앉아 있던 저는 미처 반응도 못 하고 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막 눈을 뜨려는데 머리가 아파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법제자인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저는 눈을 감은 채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세 번 외웠더니, 머리가 순식간에 아프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상체를 움직이자마자 상체 전체의 통증이 즉시 가슴을 뒤집어 놓는 듯해서 바로 또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세 번 외웠고, 상체도 아프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우고 다리를 들려 했는데, 즉시 다리에

격심한 통증이 느껴져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웠고, 다리도 아프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몸을 좀 움직여 보며 제가 어디 있는지 보려 했지만, 눈앞이 온통 흐릿했고 안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봐봐, 차 안의 저 사람 깨어났어!” 저는 몽롱한 상태에서 힘껏 차 문을 밀어 열고(차 전체가 부딪혀 변형됐음) 차 밖에 섰습니다. 보니 차 앞뒤로 모두 뺨뺨하게 차들이 늘어서 끝이 보이지 않았고, 제 주위에는 한 무리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의 키 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무슨 일 있었나요?” 옆에 있던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얼른 당신 차나 봐요!” 제가 보니 보닛과 앞유리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음을 깨닫고, 얼른 유리가 없어진 보조석 창틀에 엎드려 사장이 어떤지 살폈지만, 운전석은 텅 비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키 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운전한 사람은요?” 키 큰 사람은 남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못 찾아서 저쪽 방향으로 공중전화 걸러 갔어요.”

저는 짝 막혀 끝이 보이지 않는 차들 사이를 뚫고 그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습니다. 사장은 이미 전화를 다 걸고 힘없이 부스 가장자리에 엎드려 있었는데, 공중전화 요금을 낼 돈을 꺼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사장을 부축해 걸어 돌아가려 시도했지만, 사장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일어설 수 없었고 온몸이 아파서 떨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사장을 업고, 짝 막힌 차들 사이를 한 걸음 한 걸음 지나 우리 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장은 온몸으로 제 등에 업혀 고개를 제 어깨에 힘없이 늘어뜨린 채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0여 분이 더 지나 사장의 남편과 두 남동생이 모두 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사장을 부축해 차에 태웠고, 저도 차에 타서 함께 시립인민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사장은 검사실로 보내져 몸 안팎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모두 받았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는데 사장의 남편과 두 남동생이 거듭 저에게 함께 검사받자고 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몹시 걱정하며 제가 너무 고집이 세다고 말하고, 또 제게 차에 치이고 나서 당시에는

떨췄다가 이틀 뒤에 사망한 예가 너무나 많으니 반드시 제가 검사를 받아야 자기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손을 써서 저를 강제로 검사실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그들이 확실히 나를 책임지려 하기에 검사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줄곧 그들에게 정면으로 대법 진상을 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검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밤 이 일은 아침 그들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합니다. 저는 차에 부딪힌 후 온몸이 아팠는데 바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워서 좋아진 겁니다. 저는 몸에 이상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온몸이 가뿐하고 불편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장님은 제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업고 돌아왔는데, 그 공중전화 부스는 사고 지점에서 400미터는 족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도 제 정신 상태를 보았고 막넛동생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누님, 오늘 밤 안색이 정말 좋네요. 백옥같이 하얀 데다 불그레해요.” 그러고는 더는 저를 강제로 끌어들여 검사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평소 제 안색은 누런 편인데 그날 밤에는 확실히 백옥같이 하얗고 불그레했습니다.

사장이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이미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사장과 같은 방을 썼는데, 그녀는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약 먹는 것을 도와주고, 침대 아래에서 가부좌하고 발정념을 보충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발정념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법제자의 신분임을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40분, 저는 정시에 일어나 5장 공법을 연공하고, 아침 6시 발정념도 마쳤습니다. 사장은 진작에 아파서 잠이 깼는데, 온몸이 아파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정념을 마친 것을 보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안 아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믿지 못하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가 보조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가 충돌할 때, 그녀는 제가 부딪혀 튕겨 올라

가 머리로 앞 유리를 깨뜨리고 몸 절반이 차 밖으로 튀어 나가 거의 날아갈 뻔하는 것을 눈앞에서 봤는데, 웬지 모르게 마치 어떤 힘에 이끌려 제 두 발이 다시 좌석으로 돌아와 앉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앉는 것을 보고 자신도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파서 하룻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는데, 제가 동공(動功)을 연공하고 또 가부좌하는 것을 보고 잘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머리는 어쩔 그렇게 튼튼해요? 유리를 깨뜨리고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네요?” 그녀는 또 제게 옷을 벗으라고 하며 제 몸에 정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멍든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그녀는 제게 자기 상처를 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은 얼굴만 변색되지 않았을 뿐, 온몸이 검붉은 색이었고, 특히 두 다리는 무서울 정도로 시커멓게 돼 온몸에서 정상적인 피부를 찾아볼 수 없었으니, 아파서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장에게 파룬따파가 진정한 불가(佛家)의 고차원 공법이며, 진정으로 대법을 믿기만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평안하게 보호해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차 안에서 깨어난 후의 몸 상태, ‘파룬따파하오, 찢잔런하오’를 외우고 기적이 나타난 일을 상세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내가 어떤 힘에 이끌려 좌석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그건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만약 제가 부딪혀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면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장님도 비록 온몸이 아프지만 내장과 뼈를 다치지 않았으니 행운이에요. 이것은 사장님이 전법륜(轉法輪)을 읽어본 것과도 아주 관계가 있고, 사부님께서 사장님도 보호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아무런 관념도 갖지 말고 다시 전법륜을 잘 읽어보라고 권했고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매우 진지하게 들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였

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고 사장에게 약을 챙겨준 뒤 출근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한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사장은 계속 집에서 쉬고 있어, 저와 사장에게 그렇게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약 1주일이 지나 저는 시간을 내서 그녀에게 진상을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또 사장 집에 갔는데, 그녀 몸의 검붉은 멍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통증도 남아 있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는 삼퇴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저는 또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책을 사장에게 가져다주며, 그녀가 중공 악당이 무엇인지 더욱 전면적으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사장은 공산 악당이 인류를 괴멸시키려는 악마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처리 방식을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다

천천히 동료들은 제가 파룬궁수련생이며 진선인의 표준으로 사람이 되고 일을 하며, 매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에서 사장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 위에 있는 부사장이었고, 많은 일을 사장의 결정을 거칠 필요 없이 제가 다방면을 나눠 관리했습니다. 저는 가급적 직원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배치했고, 직원들은 저의 이런 배치에 매우 감사해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거의 매일 연장 근무를 했지만, 우리 직원들은 모두 퇴근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은 회사에 남아 제가 책임진 각종 보고서 처리, 재무 결산, 직원의 업무상 실수 처리, 다음 날 업무 배치 등을 처리했습니다. 직원 간의 갈등, 고객의 불합리한 불만에 직면해 저는 모두 미소를 띤 채 제가 배운 법리(法理)를 이용하고, 다시 속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치로 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직원 3명이 조용히 의논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가리킴)는 화를 낼 줄 모르는 게 아닐까?”

한번은 한 고객이 작은 이익을 좀 얻지 못했다고 우리 회사에서 큰 소란을 피우며, 각 부서 직원을 모두 심하게 욕하고 회사 유선전화 선까지 뽑아

버렸습니다. 직원이 국면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저를 찾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한 후 미소 지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우리 차분히 이야기해 보시죠.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몸에 안 좋습니다.” 그 사람은 노기등등해 제 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웃어? 아직도 웃음이 나와? 조금 있다 내가 당신 울게 해줄게!” 저는 온화하게 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울든 웃든, 모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곳 책임자이니 우리 사무실로 가서 차분히 이야기하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에서 그는 씩씩거리며 우리 직원이 일 처리를 못 한다며, 만약 자기 요구를 만족시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의 마음가짐으로 그와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그에게 고르라고 했고, 그는 하나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뜻밖에도 갈수록 심해지며 우리에게 5천 위안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 나서 태연하면서도 엄숙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안은 당신이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5천 위안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에 관해서는 돌아가신 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 연락하시죠.” 저는 이후 그가 감정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그에게 진상을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다시는 우리 회사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회사로 저를 찾아와 그를 대신해 사과하며, 그가 차마 낮이 뜨거워 우리 회사에 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 처리 방식은 파룬따파의 법리(法理)를 지도로 한 것이었고,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기에 저는 동료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대부분 단독으로 말했는데, 동료들은 모두 매우 공감했고, 기본적으로 다 참회했으며, 모두 기쁘게 제가 그들에게 준 대법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받았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있었는데 스스로 교제할 상대를 찾았지만 집안 식구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제게 울면서 하소연하며 어떡하면 좋

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고, 가족 구성원 역시 전생, 전전생의 은원(恩怨)으로 이뤄진 것이니 순리대로 따르고 초조해하지 말며, 모두 냉정한 시간을 좀 가져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이 직원이 제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자기 남자친구가 차에 치여 아주 심각한데 지금 병원에 있고 아직 혼수상태이며, 의사가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 어떡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에게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알려준 거 기억하나요?” 그녀는 “기억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남자친구에게 말해서 그가 반드시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직원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젊은 직원이 기쁘게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직원들은 모두 제가 매우 젊다며 저를 언니라고 불렀음), 제 상대가 깨어났어요. 그가 제 말을 들었고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도 기억했다고 말했어요. 어쩜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죠? 제가 그를 보며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외울 때 이 글자들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어요. 이건 정말 불법(佛法)이에요!” 저는 매우 흐뭇해하며 그녀에게 계속 그와 함께 외우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한 달 후, 젊은 직원과 이미 건강을 회복한 남자친구가 과일을 사 들고 함께 제게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가, 덤으로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을 제게 말해줬습니다. 사흘 전 오후, 그 두 사람이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가 공원 철제 의자 위에 배낭 하나가 있는 것을 봤는데, 안에는 2천여 위안의 돈과 일부 개인 주소 정보가 있었고 전화번호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가방을 주인집에 가져다주기로 결정하고,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3시간여 만에야 주인집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마침 가방을 잃어버려 애태우고 있다가 이 젊은이들이 가져다준 것을 보고, 돈도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고마워하며 그 두 사람에게 돈을 주려 했지만 그 두 사람은 사양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주인 가

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언니가 파룬궁을 배우는데, 그 언니는 돈을 주워도 절대 갖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 갓 취업한 대학생들을 도와줘요. 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지 못했다면 저도 당신에게 돈을 가져다주지 않았을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퇴원한 지 며칠 안 돼서 돈을 많이 썼고 마침 돈도 부족했거든요!”

저는 매우 기뻐하며 그들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알려줄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며, 이번 교통사고를 통해 양가 가족이 그들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돼 모두 이 혼사를 승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이 그들에게 준 복(福)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진상을 알리는 환경을 연 이후, 제 근무 시간은 뜻밖에도 그렇게 길지 않게 됐고 마치 모든 것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으며, 일과 수련이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계속)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자비로운 선념으로 진상을 알리다 (하)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전편에 이어)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진상을 알리다

저는 예전에 성격이 매우 급해서 무슨 일이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큰소리로 질책하고 일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저를 좀 어려워했습니다. 나중에 제 몸에 문제가 생겨 몹시 초조해지고 성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나중에는 형제자매는 물론 이모와 외삼촌의 사촌동생들까지도 무슨 일을 하거나 제 생각과 다른 농담을 하다가도, 제가 오는 것을 보면 바로 누군가 “말하지 마, 말하지 마. 큰언니 왔어”라거나 “큰언니가 알게 하지 마”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부터 저는 모든 면에서 진선인(眞·善·忍)의 법리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성질을 부리지 않았고,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희 직장 경비 할아버지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는 어쩌면 저렇게 성격이 좋을까. 웃지 않고는 말을 안 한다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을 수련해 제 마음가짐이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니 친척들도 자연스럽게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대법을 꼭 친척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이모가 몸에 문제가 생겨 큰 수술을 받고 몹시 허약해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갖고 이모 댁에 찾아가 이모와 집안 이야기를 나누며 몸을 빨리 회복시키는 좋은 공법이 있는데, 바로 파룬궁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모는 글자를 모르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연공할 방법이 없다고 하기에, 저는 이모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성심껏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모는 이모부에게 적어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부는 중국공산당(중공) 당원이었는데 그는 “이건 미신이야. 공산당이 수련을 못 하게 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조카딸이 좋다면 좋은 거고 효과가 있을 거야.”

저는 ‘마침 이모부에게 진상을 알려 머릿속 무신론을 깨뜨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모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예전 몸 상태와 성격이 어땠는지 이모부도 아시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신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다 고치지 못했고요. 이모부는 의사시잖아요. 이모부도 제 병이 고치기 어렵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 지 보름도 안 돼 온몸의 병이 다 사라졌는데, 이모부가 현대 의학으로 제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모부가 말했습니다. “그 일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 그래서 저는 파룬따파가 불가(佛家)의 고차원 공법이라는 것부터 시작해, 중공이 어떻게 파룬따파와 대법제자를 박해하는지까지 말했습니다. 이모부는 듣고 있더니 말없이 종이와 펜을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들 집 벽에 아직도 마오쩌둥 마귀의 초상화가 붙어 있는 것을 보

고서 두 분께 말했습니다. “마오 마귀가 죽은 지 벌써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집에 그런 걸 붙여두는 건 좋지 않아요. 어느 집에 죽은 사람 그림을 붙여둬요? 얼마나 음침해요! 어쩐지 이모가 그런 병에 걸려 그렇게 큰 고생을 하셨네요!”

이모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오 아무개가 사람을 보우해준다고 하던데.” 제가 말했습니다. “이모, 이모부, 두 분 속으신 거예요. 이 마오 마귀는 사람이 신을 믿지 못하게 하고 무신론을 말하는데, 그가 어떻게 두 분을 보우해줄 수 있겠어요? 예로부터 신이 사람을 보우해준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무신론을 말하는 죽은 사람이 사람을 보우해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모가 조금하게 이모부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떼어내요. 저런 건 뭐 하러 뒀어요?!” 떠날 때 저는 두 분께 각각 대법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이모의 몸은 차츰 좋아졌습니다. 이후 저를 만나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큰조카딸이 날 살렸어!” 저는 얼른 바로잡아줬습니다. “대법 사부님께서 이모를 구해주신 거예요!” 이모는 연신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줄곧 우리집에 사셨으며 돌아가실 때도 우리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집은 그의 작은 손자(큰아버지의 작은 아들)가 새집으로 개축해 자기 집과 하나로 이어 총 10여 칸이 됐습니다. 집을 개축할 때는 할아버지를 달래며 다 지으면 할아버지가 넓은 방 큰 집에 살게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 짓고 나자 할아버지가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제 아버지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에 사셨는데 이미 80여 세인 할아버지는 적응하지 못하시고, 온종일 답답하고 하늘도 볼 수 없다며 자주 혼자 몰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알고 나서 예전에 우리집이 살던 단층집을 치워 할아버지가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몹시 기뻐하셨으며 부모님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이곳은 아버지 댁과 매우 가까웠고 하루 세끼를 모두 어머니가 준비해 아버지가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저는 할아버지가 사실 집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여자아이를 무시하고 유난히 큰어머니네 가족만 편애하셔서, 선량한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구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큰어머니는 아들 둘을 낳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 때문에 늘 우리 어머니를 업신여겼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할 때면 저 역시 큰어머니에게 자주 맞고 욕을 먹었고, 할아버지에게 옷깃을 잡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직장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도시로 오게 됐으며, 저와 어머니는 큰어머니와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만약 제가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사촌동생이 할아버지 집을 속여 빼앗았을 때, 저는 할아버지에게 우리집을 내드리기는커녕 사촌동생에게 따지러 갔을 것이고, 나아가 할아버지에게 평생 편애했던 큰어머니네 식구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 두 집안의 원한과 원망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대법을 수련한 후 법리상에서 어머니와 교류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리에 밝은 분이시라, 한번은 고향의 장례식에서 우리 두 집안은 화해했습니다. 파룬따파가 우리의 원망스러운 인연을 선해(善解)해준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집에 오신 후 자주 작은 접이식 의자를 가지고 나가 사람들과 장기를 두셨습니다. 그는 자주 마당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남아선호 사상을 가졌던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 친손자가 내 집을 속여 가져가서 늙그막에 내가 머무를 거처조차 없게 됐지. 이 손녀는 어릴 때 하도 평범해서 눈여겨보지도 않았는데, 평생 이 아이의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네.”

저는 할아버지에게 대법이 좋다고 알려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귀가 너무 어두워 잘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형 녹음기에 이어폰을 꽂아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흔두 살 되던 해에 편안히 돌아가셨으며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는 고향 시골로 돌아가 치렀습니다. 대법이 우리

대가족의 원망스러운 인연을 선해해주었기에 고향에 돌아간 후 우리는 대가족의 남녀노소, 아주머니, 아저씨들과 조금의 서먹함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에 일가친척들에게 진상을 알릴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만남의 기회를 꼭 잘 파악해서 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 기간에 집에서 묘지까지는 아주 긴 거리였고, 매 구간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제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 진상을 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는 3일간 치러졌습니다. 이 3일 동안 친척들과 한담할 시간이 많았는데, 저는 자주 서너 명, 일고여덟 명에게 함께 진상을 알렸습니다. 파룬따파가 불가의 고차원 공법이라는 것과, 어떻게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하는지, 중공 악당이 어떻게 파룬궁을 박해하는지, ‘천안문 분신’ 조작 사건의 의문점, 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해야 하는지 등을 말했습니다.

제 마음가짐은 매우 좋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도 저를 무척 지지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큰어머니네 큰오빠와 남동생도 알아들은 후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선량하고 순박한 친척들 모두가 매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3일 동안 큰어머니가 중공 악당에서 탈퇴하지 않은 것 외에는,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모두 악당의 각종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초기에 진상을 제대로 알렸기 때문이었고 저는 수련생과 협력해 고향 친척들 집집마다 위성 수신기를 설치해줬으며, 친척들은 모두 NTD TV 프로그램을 특히 즐겨 봤습니다. 한번은 고향에 돌아갔는데 사촌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누나, 다음에 올 때 자료 좀 많이 가져다줘. 우리 부부가 4일장에 가는데, 그 장터 사람들이 모두 누나네 자료를 보고 싶어 해. 지난번에 내가 다 본 소책자를 그들에게 줬는데, 다들 부족하다고 했어.” 이후 저는 고향에 돌아갈 때마다 사촌동생에게 진상 자료를 한 상자씩 가져다주었고 사촌동생은 늘 기쁘게 받아 갔습니다.

어머니 입원 기간 중 같은 병실 환자들을 자비로 대하다

어느 해 겨울, 어머니가 병이 나서 수술로 입원하셨을 때 제가 내내 간병

했습니다. 병실에서 저는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같은 병실 환자들과 간병인들을 대하면서, 실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진상을 알렸습니다.

위암에 걸린 60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시골 분이시고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0여 일 입원해 계셨는데, 수술 당일 큰아들이 한 번, 셋째 아들이 잠깐 들른 것 외에는 줄곧 할머니가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밤낮으로 간병하느라 지쳐 다리와 발이 뚝뚝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와 물을 떠다 드리고 링거를 봐드리며, 침대 가장자리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시게 했습니다.

수술 전날 아침, 의사가 혈령한 잠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는데, 할머니네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물건도 사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자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새댁(현지에서 잘 모르는 아랫사람 여성을 부르는 통칭), 이따가 할아버지가 주사 맞기 시작하면 나 대신 좀 봐줘. 내가 나가서 잠옷 한 벌 사 오게.” 저는 병원 외에 시장은 병원에서 멀다는 것을 알았기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서 사시게요? 병원 거 쓰시나요? 자녀분들한테 전화해서 사 오라고 하시죠. 길도 못 찾으실 텐데, 시장은 여기서 멀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병원 건 안 써. 너무 비싸. 애들은 내일이나 오는데 의사가 오늘 사 오라고 하니 내가 나가서 어디 파는 데가 있는지 봐야지.”

저는 ‘이 할머니가 혼자 나가서 시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택시도 탈 줄 모르고 자전거도 없으니 너무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할아버지 곁에 계세요. 시장 찾기 힘드실 테니 이따 제가 자전거 타고 도매시장에 가서 사 올게요. 거기 옷은 비싸지 않고 할아버지 쓰시는 데 지장 없을 거예요.” 할머니가 울면서 주머니에서 100위안을 꺼내 제게 줬습니다. 저는 “사 오면 그때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링거를 맞기 시작하자 저는 아버지에게 봐달라고 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매시장에 가서, 품질이 조금 더 낮고 혈령한 잠옷을 한 벌 샀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빨고 탈수해 라디에이터 위에 올려 말린 후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몹시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새댁은 정말 좋은

사람이네. 우리 아들 셋보다 훨씬 낫구먼.”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하는데요, 대법은 제게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대법은 불법(佛法)이라 믿는 사람을 보호해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속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많이 외우시면 부처님께서 두 분을 보우해주실 거예요.”

두 분은 얼른 제게 잘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그들에게 가르쳐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몹시 어려운 것 같아서 잠옷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소박하셔서 이후에 꼭 서로 왕래하며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화번호를 받아두고 퇴원한 후에 다시 그들 집을 방문해 제대로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며, 그동안 주변 환자들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환자들과 간병 온 가족들과 서로 도우며 각자 휴대폰 번호를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저는 진상 자료와 대법 진상 호신부를 챙기고 선물을 사서 환자들 집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집집마다 갈 때마다 환자분들은 가족들을 불렀는데, 저는 그들이 모두 진상을 들으러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웃음꽃 속에서 진상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 “하마터면 공산당에 속을 뻔했네요”

직장, 가정생활 등 고정된 환경에서 계획적으로 진상을 알리는 것 외에, 외출해 쇼핑하거나, 친구들과 잠시 모이거나, 차를 타고 외출하는 등의 일 중에도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진상을 알립니다. 가장 자주 하는 것은 쇼핑인데, 저는 두 곳에서 쇼핑합니다. 하나는 슈퍼마켓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입니다. 슈퍼마켓에 가는 것은 시장에서 사기에는 시간이 아까운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인데, 주로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의 지폐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진상 지폐를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에 가서는 많은 물건을 사는데, 친척이나 친구들이 모두 일로 바빠서 구매할 것이 있으면 제가 모두 기꺼이 사다 주어, 그들의 생활도 편해지고 제가 진상을 알리기도 편했습니다.

저는 어느 시장이든 다 가며 주로 진상 지폐를 씁니다. 시장에서는 진상을

알리기 좋은데 어떤 계기든 쉽게 진상을 명백히 알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저는 대법을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한번은 쇼핑하고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 조금 망설여져, 잠시 정념을 발해 이 사람이 진상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교란을 제거했습니다. 저는 5위 안짜리 진상 지폐 한 장을 꺼내 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제가 장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글자가 쓰인 돈을 거슬러줬네요. 파룬궁에 대해 쓰여 있어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살짝 돌려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글자인데요?” 저는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성심껏 외우면, 위난이 닥치기 전에 생명을 보우할 수 있다”라고 읽어드렸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서 물었습니다. “믿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안 믿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믿어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자 그대로만 봐도 진선인 세 글자는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 사회에 부족한 것이 바로 진선인이고요.”

그가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믿어서 뭐해요? 공산당이 믿지 못하게 하는데, 믿다가는 공산당에 손해만 보죠!”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공산당이 믿지 못하게 해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사람 사이에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천재지변도 많고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도 파룬궁 수련하죠?”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하는 투나 표정이 우리 둘째 누나랑 너무 닮았어요. 우리 둘째 누나도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공산당에 3년간 갇혀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돌아와서도 여전히 수련하고 누가 뭐래도 듣질 않아요! 어느 날 정오에 둘째 형님이 나더러 자기 집에 와서 누나 좀 옮기라고 전화를 했어요. 가봤더니 밥이 한상 차려져 있는데 아무도 안 먹고, 누나는 침실에서 가부좌하고 이려고 있더라고요.”

그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손을 세우는 동작(입장)을 해 보

였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그의 둘째 누나가 낮 12시 정각에 정념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누나 혼자 가서 연공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랑 둘째 형님이 다가가서 양쪽에서 한 사람씩 잡고 그녀를 다른 방으로 옮겨 댔는데, 내려놓은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연공하고 있더라고요! 눈도 안 뜨고, 사람 화나게 하죠?!”

저는 ‘푸하’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한상 가득한 밥은 누가 차렸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째 누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나가 집에서 집안일은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해요. 무슨 일이든 다 그녀가 해요. 손자도 봐야 하고, 큰애 보고 나면 작은애 보고, 온 식구 밥도 다 그녀가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누나 몸이 감당할 수 있대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또 말도 마세요. 그녀는 예전에 골골하는 환자여서 집안 돈이 다 그녀 주사 맞고 약 먹는 데 들어갔어요. 빨래하고 밥하는 것도 다 둘째 형님 일이었죠. 파룬궁을 수련한 후에는 못 하는 일이 없고 늘 기운이 넘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참 좋네요. 파룬궁을 수련하고 약 먹고 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둘째 형님이 빨래하고 밥할 필요도 없고, 손자 둘도 돌볼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운전기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누나가 밥을 다 차려놓고 가족들 먼저 먹으라고 한 거고, 그녀는 단지 15분 동안 가부좌하러 간 거잖아요. 가부좌가 끝나면 그녀도 밥 먹고 설거지했을 거고요. 만약 기다리고 싶으면 15분 기다리면 되고, 기다리기 싫으면 먼저 먹으면 되는데, 왜 그녀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긴 거예요?” 운전기사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또 말했습니다. “당신 누님은 정말 진선인의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거네요.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집 안팎을 모두 깨끗하게 정돈하고, 노인을 돌보고 아이도 잘 돌보고, 당신들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게 하잖아요. 이게 다 대법이 그녀에게 좋은 몸을 줘서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녀에게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정말 대법을 배우지 않게 돼 예전처럼 골골하는 환자가 된다면, 그녀에게나, 당신

들 온 가족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겠어요?”

운전기사의 표정이 엄숙해지더니 한참 후에야 제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둘째 형님과 잘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우리가 더는 이렇게 어리석게 굴면 안 되겠네요. 하마터면 공산당에 속을 뻔했어요. 그럼 내가 탈당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둘째 누나가 나더러 탈당하라고 몇 번이나 권했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을 통해 돈까지 써가며 입당했는데, 말 한마디로 탈당한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탈퇴해야죠. 공산당이 얼마나 나쁘게 변했는지 보세요. 하늘이 조만간 반드시 그것을 멸망시킬 거예요. 당신이 그 조직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당신도 그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린 다 선량한 사람인데 그것과 함께 순장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탈퇴할게요, 탈퇴할게요. 제 이름은 리 아무개예요. 실명으로 탈퇴할래요! 나 좀 탈퇴시켜줘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시간 될 때 둘째 누나에게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책을 한 권 구해달라고 해서 읽어보시면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벌써 봤어요. 계속 안 봤는데, 돌아가서 바로 볼게요!” 제가 차에서 내릴 때 운전기사는 기쁘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맺음말

수련의 길에는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비틀거렸지만,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굳게 명심하고, 대법이 제게 주신 지혜로 진상을 잘 알리며, 사부님의 정법(正法)을 도왔습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호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수련생 여러분의 신뢰와 격려, 일깨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촉박한 시간 속에서 저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삼가 받들어 용맹정진하고, 자신을 착실히 수련하며, 세 가지 일을 잘해내, 역사 이전의 대원(大願)을 완성하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깊이 숨겨진 사람마음을 제거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2012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수련 초기에 매일 ‘전법륜(轉法輪)’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공부했습니다. 사부님의 설법을 많이 법공부함을 통해 파룬따파의 법리가 제 겉과 층층이 미세한 곳까지 정화했고, 파룬따파는 제 몸과 마음을 젊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체험했습니다! 파룬따파는 또한 제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워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생에 사람이 된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사부님과 오늘 인류의 마지막 재난에서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고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약을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에 정법시기 대법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부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저는 인간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사부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부님께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저의 깊이 숨겨진 사람마음을 제거한 수련 체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제 수련에 병목이 생겼습니다. 법공부할 때 머리가 어지럽고, 때로는 파룬따파 서적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법공부할 때 마치 유리판 하나가 가로막힌 것처럼 법리를 보지 못하고,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가부좌하고 법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서서 법공부를 했습니다. 정공을 할 때도 자주 정신이 몽롱하고, 발정념을 해도 흐릿했습니다.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저는 법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외우며, 매일 최소 한 시간 이상 발정념을 했습니다. 때로는 두 시간씩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진상을 알릴 때 중생이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안으로 찾으며, 법속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바르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 층에서 맴돌며 진정한 제고가 없었고,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부님께 일깨움을 요청 드렸습니다.

사람을 구하며 보답을 바라던 마음을 제거하다

사부님께서서는 제가 착실하게 수련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저를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날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하루 8시간 일한 뒤 퇴근한 후 또 인터넷 예약택시를 운전하고 새벽 2시에야 집에 돌아와 쉴 수 있어요. 요즘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 그래. 지금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야. 밤에 택시도 할 수 있으니 이미 운이 좋은 거야. 힘내라 아들이.”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라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명혜망에 수련생들의 글을 보면, 대법제자의 자녀들이 부모의 수련을 지지해 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내 아들도 내가 수련하는 걸 지지하고, 내가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하다 무언가 필요하면 즉시 사 주잖아. 또 많은 친구의 전화 번호를 알려줘서 진상을 전하게 도와주기도 하지. 나는 매일 사람을 구하는데, 왜 내 아들은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일을 떠올리자 마음이 순간 놀라며 ‘이건 사부님과 법을 믿지 않는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수련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왜 사부님은 다른 수련생의 자녀는 돌보시면서 내 아들은 돌보지 않으실까’라는 불평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사람을 구하는데 아들이 당연히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람을 구하며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과 흥정을 하는 것이었고, ‘내가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아들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인가’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구세력(舊勢力)이 강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주의식(主意識)이 약해 그 생각을 바로 잡지 못했고, 구세력이 강요한 사부님과 법을 믿지 않는 이 사(私)적인 생각을 전면 부정하고 해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또한 강한 질투심도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수련생의 자녀가 복을 받으면 그들을 위해 기뻐하기보다 마음이 평형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마음을 깨닫자 저는 강력한 정념을 내보냈습니다. ‘내가 파룬파 파에 동화되는 것을 교란하는 구세력이 강요한 일체의 요인을 철저히 제거한

다.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을 교란하는, 법에 맞지 않는 부패물질을 해체한다. 구세력의 일체 사악한 배치와 시험을 전면 부정한다.’ ‘나는 정법시기의 대법제자이며, 사람을 구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깊이 숨겨진 사람마음을 제거하고 나자, 다시 법공부, 연공, 발정념을 할 때 그릇된 상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 아들에 대한 정을 근본에서 제거하지 못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악이 틈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평소에 법공부를 충분히 착실하게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들은 타지에 살고 있어 저는 가끔 전화를 합니다. 통화할 때 저는 대법제자의 입장에서 “항상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워라. 생활 속에서는 진선인(眞·善·忍)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반드시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께서는 선량한 사람만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매일 마음속으로 외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직장 상사 부부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도 시켰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이익을 창출했어요. 때로는 늦게까지 일해도 초과수당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장님은 저를 아주 만족해하며 연말에 배당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경기가 나빠 회사 수익도 좋지 않은데 배당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그냥 너를 붙잡아 두려는 거야, 다른 데로 이직할까봐’라고 했고, 저는 ‘우린 일도 잘 맞고, 제 업무 능력도 인정해 주시잖아요. 또 우린 친구이기도 하니까 이직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분점을 내면 그때 배당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기뻐하며 “지금 돈 벌기 어렵지만 이익을 중시하지 않고 일을 대하는구나. 네가 일을 하며 남을 먼저 생각하니 참 잘하고 있어.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에 대한 정에 얽매이지 않게 됐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하다

수련생인 저의 둘째 언니는 중공의 검은 소굴에서 박해를 당하다가 돌아와 우리집에 함께 지냈습니다. 얼마 전 언니는 병엽 가상에 시달려 밤새 잠을 못 자고, 온몸이 아프고 다리가 부어 변형돼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언니는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발을 들 수 없어, 저를 부축해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으며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사부님께 청해, 그럼 걸을 수 있을 거야.” 사부님의 가지(加持)로 저는 언니를 부축하고 끝다시피 화장실에 데려갔습니다. 아침이 돼 저는 언니와 교류했습니다. “밤에 다리가 아파 잠 못 잘 때 왜 연공하지 않았어?” 언니는 “발이 너무 부어 아파서 서 있을 수 없어 정공만 했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발이 아파서 연공을 못했다는 말에 화가 나서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다리 아프다고 죽어?! 지금 상태 좀 봐. 수련인 같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일반사람보다도 못해. 아프다고 연공을 안 해? 인(忍)을 실천하지 못했잖아! 왜 자신을 수련하지 않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좀 강해질 수 없어? 이런 말은 정말 참다못해 하는 거야!” 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응, 연공할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난 채로 언니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안으로 왔습니다. ‘언니는 아직 어려움 속에 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그렇게 꾸짖고 연공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을까? 왜 그렇게 선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동정심이 없었을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이유는 정 때문이었습니다. 언니가 고통스러워하니 제 마음도 괴로웠고, 질투심도 있었고 ‘왜 이렇게 강단이 없을까’ 하는 깔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악한 당문화의 ‘통제(控)’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처럼 아침마다 1시간 반 동공과 2시간 정공을 하길 바랐습니다. 저는 ‘한 척으로 천하를 재는(一尺量天下)’ 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마음을 찾은 후 사부님께 마음속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틀렸습니다. 찾아낸 사람마음을 모두 해체하고 없애겠습니다.’

사실 언니는 이미 매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무리 아파도 매일 사람을 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우린 같은 수련생일 뿐이니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니에 대한 정을 없애고, 예전처럼 매일 언니를 위해 발정념을 하고 생활상으로는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자마자 언니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언니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어.” 언니는

“넌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급했던 거야. 네 마음 이해해. 다른 수련생이 이런 상태였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그건 나에 대한 정이야. 그 정을 해체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다른 수련생이 병엽 가상이라면 부드럽게 법 위에서 교류했을 것이고 화내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언니에게 “이 사람마음을 발정념으로 해체할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발정념으로 사람마음을 해체하자 마치 두꺼운 껍질이 벗겨진 듯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언니에 대한 정을 제거한 뒤, 생활에서 돌볼 때도 정도를 잘 조절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세세하게 다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주면 그것은 언니를 병자로 대하는 것이 되니까요. 언니가 무엇을 부탁하면 해주고, 예를 들어 오늘 머리를 빗어 달라 하면 도와주고, 다음 날 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습시다. 더 이상 꾸짖지 않고, “정념을 유지하고 강해져. 사부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곧 나아질 거야”라고 격려했습니다. 언니는 “이제 정말 선해졌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 속에서 언니의 상태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과시하는 마음을 제거하다

매년 두 차례 법회 글을 쓸 때면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며칠 전부터 어떻게 교류 문장을 쓸지 구상하고, 다 구상한 후에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또 구상한다고 하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글 쓸 때 구상 같은 거 안 해. 초고도 필요 없어. 글을 쓰기 전, 먼저 가부좌하고 결인하고 사부님께 ‘제자가 어떻게 이 교류 문장을 써야 할지,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일깨워주십시오’라고 청하지. 결인하고 잠시 후 사부님의 점지로 영감이 떠올라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알게 돼. 글을 쓰는 지혜가 시냇물처럼 졸졸 흘러나오고 내 수련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져 금세 다 써. 언니들처럼 구상할 필요가 없지.” 언니 둘은 웃으며 “그게 바로 과시심이잖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왜 과시심이지? 나는 과시하려는 게 아니야. 난 원래 교류 문장 쓸 때 언니들처럼 구상할 필요가 없잖아. 26년이나 수련했는데 아직도 교류 문장을 쓰면서 구상을 해야 하나? 나는 12년밖에 안 됐지만 교류 문장 쓰는 게 그렇게 힘들일 필요가 없잖아. 난 구

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사부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많은 수련생이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많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많은 마음이 이미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그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과시심리는 곳곳마다 모두 체현될 수 있으며, 좋은 일을 하면서도 과시심리가 체현될 수 있다.”(전법륜) 저는 ‘정말 과시심이구나!’ 하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더 찾아보니 이건 언니들을 깔보는 마음이고, 질투심이며, 교만과 자기를 증명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마음을 찾자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와 구원, 사부님께서 날 지옥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또 지난 12년 파룬따파 속의 수련이 없었다면 환갑이 넘은 내 몸과 마음이 세속의 큰 물결 속에서 얼마나 타락했을지 몰랐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오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생에 우주의 제1칭호인 ‘정법시기 대법제자’가 돼,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또한 모두 사부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우주 파룬따파 속의 아주 작은 미립자 중의 미립자일 뿐입니다. 이를 생각하니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사죄드렸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12년 수련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더러운 사람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사부님, 이 사람마음은 진짜 제가 아닙니다. 진짜 저는 진선인(眞·善·忍)의 물질로 구성된 생명입니다. 거짓 나를 구성하는 사람마음과 생각을 모두 해체하고 없애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짧은 사람을 구하는 시간 동안 수련생들과 함께 법공부하고 함께 수련하며 정진하겠습니다!”

목적물 달성하려는 마음을 제거하다

수련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저는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 권씩 법공부하고 법을 외웠습니다. 또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당(黨)문화 해체’,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네 권도 다시 공부했습니다.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법공부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진상을 알릴 때 중생이 ‘삼퇴’를 받아들이고 “좋아요”라고 하면 다른 진상은 듣지 않아도 ‘이 사람은 삼퇴했다’며 만족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량을 추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중생이 진정으로 구원되려면, 반드시 중공 악당이 조작한 천안문 분신자살의 거짓 진상을 알아야 진정으로 구원될 수 있고 삼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 진상을 알릴 때 중생이 ‘삼퇴’에 동의하면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드릴게요. 재난이나 전염병을 만날 때 가족과 함께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염하세요. 파룬따파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 파룬따파의 보호를 받아 평안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뒤 천안문 분신사건의 조작된 점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안으로 더 찾아보니 이전에는 제가 천안문 분신이 조작된 거짓 뉴스라고 말하면 상대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마음과 급한 마음이 있었으며, 마치 과업을 완수하듯 진상을 말하고 자비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려는 마음과 급한 마음을 깨닫고 발정념으로 이 사람마음들을 해체한 뒤, 중생이 진정으로 진상을 깨닫길 바라는 자비한 마음으로 말하자 사람들은 천안문 분신자살이 조작임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당·단·대’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와 천안문 분신자살 진상, 삼퇴보평안(三退保平安)만 말하고, 생체 장기적출하는 진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 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삼퇴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구하기가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퇴’한 사람에게는 ‘천안문 분신자살사건 진상에 대해 아세요?’라고 묻고, 모른다면 그것만 말하고 다른 것은 생략했습니다. 이것도 사람 구할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수량을 늘리려는 마음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법공부를 통해 심성이 높아져 수량을 추구하는 마음을 제거했습니다. 지금은 ‘당·단·대’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미 탈퇴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천안문 분신자살 진상과 전염병 진상,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중공의 파룬궁수련생 장기적출 범죄까지 모두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은 아무도 믿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파룬궁수련생의 장

기를 산 채로 적출해 돈벌이에 이용한 것입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간·신장·심장·각막을 적출해 부유층에게 팔았습니다. 심지어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지금은 청소년 실종도 많아졌는데, 장기적출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우한연합의과대학병원(武漢協和醫院)에서 하루에 어린이 심장 이식 수술을 세 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날 혈액형이 맞는 세 명의 뇌사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있어요.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인민병원 부원장 천징위(陳靜瑜)는 인터넷에서 자신이 2024년에 100건의 폐 이식 수술을 했으며, 2023년 6월에 우시에서 205건의 폐 이식 수술을 했고 항저우(杭州)에서 165건의 폐이식을 했으며, 그 외에도 전국 각지의 협진 수술 등이 있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폐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인데, 그렇게 많은 폐가 어디에서 왔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사악해요! 산 채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 이것은 이 지구상 일찍이 없었던 최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중공은 얼마나 사악해요! 하늘이 그것을 용서할까요? 우리 중국인은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업보가 있다’고 말해요. 누가 업보를 당할까요? 공산당이 당해요. 그 공산당은 당원, 단원, 소년 선봉대로 구성됐어요. 그러면 하늘은 우리 좋은 사람에게 기회를 줬어요. 탈퇴하는 사람은 악과 한패가 아니며 구별돼, ‘평생을 위해 싸우고, 항상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는 등의 불길한 맹세를 취소하고 무효로 하면 하늘이 그것을 멸할 때 우리는 재난을 피할 수 있고 연루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의 가족과 친지들이 빨리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기를 바라서이고, 바로 좋은 사람들이 평생 평안하기를 바라서예요.”

상대방이 듣고 있는 한, 저는 계속 진상을 알렸습니다. “지금 재난이 빈번해요. 지진, 산사태, 홍수 발생, 전염병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사회도덕이 추락한 탓이죠. 사람들은 도덕의 최저 한계선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해요. 살인이든, 장기적출로 돈을 벌든 말이죠. 이게 인간 사회인가요?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려요. 하늘이 나쁜 사람을 처리할 것입니다. 파룬파파는 불법(佛法)이며, 선량한 사람을 구하러 왔어요. 그는 불가 8만 4천 법문 중의 한 법문이에요.

현재 100여 개국으로 전파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5천 개가 넘는 상을 수상했어요. 5월 13일은 ‘세계 파룬따파의 날’로, 전 세계적으로 경축해요. 파룬따파의 주요 저작인 ‘전법륜(轉法輪)’은 50여 개 언어로 번역돼 외국어로 출판된 세계적인 고전이 됐어요. 이는 세계 문화사의 기적이며 우리 중국인들의 자부심이에요.” 저는 그들이 이렇게 진상을 듣고 진정으로 깨닫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마음과 수량을 추구하는 마음을 제거하자 사람을 구하는 마음이 순수해졌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며, 그들을 진정으로 구하고 제가 세운 신성한 서약을 이행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중생이 진상을 알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때, 사부님께서 또 한 명의 인연 있는 중생을 구원해 주신 데 대해 마음속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맺음말

이제 저는 수련자가 어떤 일을 겪든 모두 우연이 아니며, 사부님의 정연한 안배이고, 저를 돌아가게 하는 길 위에서 층차를 높일 수 있는 기회임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저를 탓하거나 오해해도 더는 변명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밖으로 보지 않으며, 즉시 ‘이건 수련 중에서 제고할 기회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사람마음과 사람의 정(情) 때문인지 생각하고, 사람마음과 정을 찾아낸 후, 즉시 제거하고 없애 제고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수련인의 바른 법리로 자신의 일사일념을 요구합니다.

사부님! 제자는 이 짧은 사람을 구하는 시간 동안 저 자신을 잘 수련하겠습니다. 사부님 말씀을 잘 듣고, 세 가지 일을 잘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부지런히 전진하겠습니다! 제가 세운 신성한 서약을 꼭 지키겠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법 연공음악을 임의로 변경해선 안 된다

글/ 중국 하이룽장성 대법제자

[명혜망] 하이룽장 지시(鷄西) 지역의 일부 수련자들 사이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제5세트 ‘신통가지법(神通加持法)’ 음악이 90분·120분 버전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 두 버전은 명혜망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 명혜망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60분 버전 하나뿐이다. 대법을 수호하기 위해 수련자들은 이러한 비공식 버전을 더는 사용하지 말기 바란다.

명혜망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2018년 버전의 파룬따파 연공음악은 명혜라디오 ‘음악 감상’란의 ‘파룬따파 연공음악(2018년 버전)’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부님께서는 ‘중국 수련생들은 온라인 법공부를 즉시 중단하라’라는 글에 대한 평어에서 말씀하셨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수련생 중에서 사용할 수 없다. 연공음악은 누가 고친다면 바로 파괴하는 것이다.”(2021년 7월 13일 명혜편집부 기록)

모두 서로 일깨워 주어 사부님께서 정식으로 허가해 출판하신 대법 연공음악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중국인의 ‘외국 증오’ 정서와 관련된 기본 사실들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각국 관광지에서 진상을 알리는 수련자들이 보편적으로 접하게 되는 중국인들의 마음속 매듭이 바로 ‘외국 증오’다.

이를 위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역사적 연원 등 화제에 대해 몇 가지를 정리했으니 진상을 알릴 때 참고하시기 바란다.

먼저, 각국 수련자들이 거주국의 상황, 중국과 거주국의 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을 건의한다. 중국공산당(중공)의 의도적인 선동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특히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일반인)은 중·일, 중·미 간의 역사적 연원과 갈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현재 해외로 이주하거나 여행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와 지식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진상을 전하는 과정에서 겸손하고 평등한 태도로 소통할 것을 권한다. 마치 진리를 장악한 듯한 우월한 어조로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셋째, 거주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나 역사적 잔존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를 회피할 경우 자칫 사람들은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한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 수련자들이 그 역사적 연원과 원인을 이해하면 중생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구미(유럽·미국) 국가를 증오하는 것에 관하여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인민과 모두 우호적이었다. 그들은 중국 인민을 적으로 삼지 않았고, 미국 의원들조차 “반드시 중공과 중국 인민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 인민과 어떠한 분쟁도 없으며, 중국 인민은 중공의 착취와 탄압을 받는 주요 피해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중공 공식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럽의회의 이른바 ‘반중[反華]’은 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권은 중국 인민 자신의 인권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노동자 복지, 불법 아동 노동 고용, 여성 보호, 주 5일 근무제, 언론의 자유(부패와 사회적 불공정에 반대하는 데 유리함) 등이다. 구미는 중국이 자유경쟁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기를 희망하는데, 시장경제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과 중국 인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중공이 유럽과 미국에 반감을 갖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중공이 국내에

서 누리는 특권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2. 일본을 증오하는 정서에 관하여

중·일 관계는 매우 민감하며, 관련된 의제도 많다.

1) 일본군의 중국 침략 문제에 관하여

상대에게 우리 역시 일본의 침략을 단호히 규탄하며 당시 인민이 당한 학살에 대해 깊은 동정을 표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2) 전후 일본은 평화주의의 길을 걸었다

전후의 일본은 평화주의 노선을 견고 있으며, 이는 전쟁시기의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말해줄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의 모든 번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은 자유와 인권을 갖고 있고, 군대가 지배하는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다. 전쟁시기의 일본은 군인이 통치하는 군국주의 국가였고 국민에게는 자유가 없었다. 많은 일본인에게 참전은 그들 자신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다.

전쟁 중에 일본 천황은 신이었지만 전후에 일본 천황은 이미 실권 없는 국가원수이며, 게다가 줄곧 평화주의 수호자로서 계속 전쟁을 반성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부해 왔다.

3) 중국인이 ‘일본은 중국 침략 후 결코 사과한 적이 없다’고 오해하는 문제에 관하여

중국 내 언론은 “일본 교과서는 침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전한다. 일본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출판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극우 세력이 편찬한 교과서는 채택률이 매우 낮으며,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채택되는 교과서는 모두 침략 책임을 인정하는 교과서다.

전후 일본은 중국에 여러 차례 사과했다. 당시 중국이 일본의 전쟁 배상을 포기하자 일본은 미안한 마음에 중국에 ODA(정부 개발 원조)를 제공했고, 중국에 장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했다. 베이징 수도공항, 광저우 바이윈공항, 난쿤철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공정을 도왔으며, 각 지방 도시

에 세워진 방역소와 공공 위생 체계의 완비도 일본의 도움으로 건설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일본 기업들은 정부의 호소에 가장 먼저 응답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운영했다. 많은 중·일 합작 브랜드가 탄생했으며, 이는 중국 경제 발전을 크게 추진했고 중국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중국 시장의 현대화를 이끌었다.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야스쿠니 신사는 1869년에 처음 세워졌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 여러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과 군무원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신사에는 약 246만 명의 전사자 영령이 모셔져 있으며, 그중에는 러일전쟁, 제2차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일본 군관들도 포함된다.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1945년 5월)까지 일본 군부가 전담하여 관리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군은 일본에 전후 헌법의 정교(政教) 분리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했고, 신도(神道)를 비정치화하여 일반 종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야스쿠니 신사는 민영 종교법인으로 개편됐다.

이 신사는 1978년에 2차 대전 중 14명 일본 A급 전범의 위패를 모신 이후 큰 논란이 되었고, 그로 인해 이후 천황은 이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도 공직자의 참배 가능 여부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가 있으며 미국은 이런 행위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거 일본 관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도 중공은 항의하지 않았고, 최근 몇 년 들어 국내의 증오 정서를 자극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 문제를 선전하기 시작했다.

또한,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일본의 문화적 전통으로, 대만과 한국에서의 예를 들 수 있다.

(1) 아베는 2013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국군 항일 열사를 모신 충열사에 참배했다.

(2) 기시다 후미오가 총리 재임 시 한국을 방문해 한국 독립운동 열사를 안장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일본이 강제로 중국 노동자를 징용하고 여성을 강제로 위안부로 만든 문제에 대해 우리도 똑같이 규탄하며 피해자에게 동정을 표해야 한다. 한국의 예를 들 수 있는데,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로 합의를 이루었고 일본의 사과와 830만 달러 배상을 받았다. 이 돈은 재단을 설립해 생존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과 합의하지 않았다. 원인은 중공이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해 정의와 배상을 쟁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의제를 이용해 증오를 선동하려 하기 때문이다.

난징대학살에 관하여 일본은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관점과의 차이는 사망자 30만 명이라는 숫자의 정확성에 대해 현재 논쟁이 있다는 점이다.

4) 중생들이 묻는 내용, 일본 사회의 보수화와 우경화는 군국주의의 부활인가?

상대방에게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말해줄 수 있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교육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에서 일본 패배는 노진구가 환호한 사건이며,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례를 알고 있다.

우경화와 보수는 군국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자유시장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일부 극우 단체가 침략 전쟁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만 이는 사회의 주류가 아니다. 또 중국인들의 반일 의식이 적어질수록 이러한 언행이 자랄 토양도 줄어든다.

중공은 늘 전쟁을 이용해 증오를 선동하고 민중의 분노를 탄 데로 돌려 국내의 반일 정서를 갈수록 고조시키는데, 이런 무책임한 수법은 중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 사회에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민중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민선 정부는 일본과의 호혜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 내 일본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 중국의 경제와 고용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아주 좋은 예인데 일본 사회는 한국에 대한 수용도가 비교적 높다. 비록 한국과 일본도 영토 분쟁이 있고 한국인도 강한 민족 감정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민주 국가이기에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당선 후 모두 한일 관계 안정을 매우 중시해왔다. 중공의 정책은 단지 중공 특권 계층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민선 정부는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진다.

오늘날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일본 군국주의와 매우 닮았다. 민족주의가 성행하고, 관료사회의 정치적 부패, 재벌의 인민 자원 수탈과 독점, 군인 세력이 확대되어 국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3. 한국에 대한 편견에 관하여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은 두 차례 서울을 점령한 적이 있었다(이후 서울은 미국 측에 의해 다시 탈환됨). 이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가볍게 보는 태도를 갖고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다. 중국인의 반미 감정 역시 한국에 전가될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은 오늘날 중국 공식 선전에서 반미·반서방의 상징이 됐고,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자긍심의 원천이 됐다.

1) 상대방이 한국전쟁(즉 항미원조) 화제를 언급할 경우

당시 항미원조에 참여한 지원군은 많은 중국인에게 민족 영웅이므로 이 감정을 직접 부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먼저 한국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군 군인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할 수 있다. 그다음 이야기 흐름을, 많은 지원군은 실제로 항일전쟁에 참여했던 국민당 군대였으며, 항일의 주력은 사실 국민당이었다는 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국전쟁 문제를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과 이 전쟁이 도대체 맞는지 틀린지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사람들에게 전쟁의 결과는 3대 세습의 김씨 강패 정권을 만들어냈고, 북한 사람을 극심한 빈곤 속에 빠뜨렸다는 점을 알려주면 된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38선 남북 인민 삶의 격차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심지어 오늘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문화다.

많은 참전 노병들이 중공 공식 선전에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

칭송받았지만, 제대 후에는 정부가 그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생활 보장을 거부해 청원에 나서 권익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 정부의 ‘안정 유지’ 대상이 되어 탄압을 받았다.

항미원조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화동사범대학 선즈화(沈志華) 교수의 영상과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소련 스탈린과 북한 김일성이 중국 몰래 공모한 침략 행동으로, 중국은 피동적으로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 김일성은 중공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으며, 전쟁이 끝난 뒤 당내 연안파(延安派, 친중공파)를 숙청하기도 했다.

스탈린과 김일성이 일으킨 이 전쟁에서 중국의 희생은 매우 컸으며, 최소 100만 명의 중국 군인이 사상했다.

2) 한국은 왜 한·미 동맹을 맺었는가?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35년 동안 받으며 철저한 망국을 경험했다. 항전 후 다시 독립했지만 곧바로 남북 분단이 이어졌다. 이는 한국의 생존 불안을 크게 만들었고, 민족적 자존심도 매우 강해졌다. 한국이 한·미 동맹을 갖게 된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들이 늘 북한의 군사적 위협 아래 놓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사일과 대포로 한국을 위협했고, 여기에 망국과 식민 지배의 역사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3) 한국의 반중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국인들이 중국에 반감을 품는 근본적 이유는 중공이 북한이라는 깡패 독재 정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인민을 굶주리게 만들면서 통치자들은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음탕했다. 중공은 중국 인민의 돈으로 북한에 돈을 펴펴 쓰며, 이렇게 김씨 정권을 60년 동안 부양해왔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가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중·한 민간 감정이 좋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공산주의가 한반도의 분단을 만들었고, 북한 인민의 기근을 만들었으며, 무수한 가정의 생이별을 만들어낸 것이다.

4) 이른바 ‘한국이 중국 전통문화를 빼앗아 간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공자가 한국인’이라는 등의 말은 대부분 인터넷이 막 등장하던 시절 눈길을 끌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다음으로, 국내 선전에서 “한국이 단오절을 자기네 것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 강릉단오제는 중국 전통의 단오절과 연원이 있기는 하나 같은 것이 아니며, 이미 한국 고유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가 2000년에 걸쳐 발전하여 서기 4세기 프랑스에서 천주교가 형성되었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고딕 양식 건축이 나타났으며, 러시아의 정교회는 같은 과정에서 그보다 먼저 그리스에서 형성된 기독교 분파임에도 교회 건축은 둥근 돔을 특징으로 발전했고, 러시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정교회 국가가 된 것과 같다.

문화는 역사라는 긴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한다. 기원이 중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국의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법제자는 사심 없이 오직 남을 위해야 한다

글/ 산동성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께서 저희에게 “어디에서나 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캐나다법회 설법)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법제자는 사부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며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착실하게 수련하면서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원하며 서약을 실행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사람이 되다

저희 협력사 직원은 우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사 직원이 저에게 마치 적대감을 가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와 마주치면 절대 인사하지 않고 항상 냉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맞은편에 있는 동료와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일반인이라면 서로에게

이익 관계가 없으니 이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련생인 저는 언젠가 그에게 진상을 알려 구원해야 하므로 적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안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된 것일까? 아, 생각났다.’ 한번은 그가 고객 몇 분을 모시고 와서 업무 이야기했는데 계속 담배를 피우고 끝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담배 냄새를 참을 수 없어서 그들 앞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12시가 될 때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저희의 점심시간은 11시 50분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없어 동료와 저는 도시락을 들고 다른 장소를 찾아 사무실을 나가면서 문을 닫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모두 나와 복도가 사람들로 북적였고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저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협력사에서는 업무를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제가 그를 배려하여 사람들 앞에서 그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 식사 시간이 지체돼 밖에서 먹어야 했더라도 문을 닫아주었어야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웠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어느 날, 협력사 직원이 다시 고객을 모시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들이 그냥 앉아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제가 협력사 직원이 아니고 직장에서 직위도 낮지 않으며 게다가 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협력사 직원도 순간 멈칫하더니 처음으로 웃으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저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 수련생으로서 이기적이 아닌 남을 위하고 정법과 사람을 구원하는 각도에서 행해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중생은 모두 대법을 위해 왔으니 제가 수련을 잘하며 중생을 구원해야 하는 게 저와 중생의 관계입니다.

집에서 좋은 사람이 되다

시아버지는 평소 혼자 사시다가 겨울이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위생이나 생활 습관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변을 늘 여기저기 묻히셔서 저는 아침저녁으로 변기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이 적어 새벽 5시쯤 일어나 이곳저곳 다니셨고 문을 여닫을 때 소리에 신경 쓰지 않으셔서 아이의 휴식을 방해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시아버지가 먼저 화장실을 차지하고 세수와 면도를 하셨고 출근해야 하는 저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매일 반복되다 보니 처음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생인 제가 안으로 찾으며 원망하지 않고 이해와 포용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는 제가 먼저 다른 것을 준비하며 출근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제가 묵묵히 청소하면서 원망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억제하고, 고생하며 소업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설 전에 시아버지가 급환을 앓으셨을 때 저는 최대한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준비하면 제가 병원에 가져다드렸는데, 밥이 식을까 걱정돼 외투 속에 품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건강이 완쾌되지 못해 대변을 가리지 못하셔서 화장실, 침실, 옷안팎이 온통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수련생임을 묵념하며 더러움을 피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아주 차분히 치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책하실까 염려돼 저는 오히려 “아버님 괜찮습니다, 더러워지면 치우면 되니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제 말을 들으신 후 시아버지는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고 저의 관용과 선의를 느끼셨습니다.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서약을 실행하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원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장쩌민 고발에 참여한 후 ‘610(장쩌민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파출소, 주민센터, 촌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우리 회사와 집으로 찾아와 괴롭혔고 가족들도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한번은 진상을 모르는 청년의 신고로 제가 잡혀갔을 때 촌주임은 공개회의에서 저를 지목해 비판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제가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돼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예로부터 수련은 고난이 많고 특히 대법 수련은 더욱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압력이 있더라도 저는 수련의 의지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 ‘610’ 책임자가 근무 시간에 제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도 소중한 생명이어서 그의 현 직무 때문에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심을 버리고 두려움 없이 혼자 찾아갔습니다. 진상을 모두 알린 후 ‘610’ 책임자는 웃는 얼굴로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파출소에서 회사로 괴롭히러 왔을 때 사무실 동료들은 모두 서둘러 제 책상을 급히 정리해 도와주었으나 사장은 그들에게 제 남편 회사를 알려주며 그들을 남편에게로 안내했습니다. 사장이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저는 안으로 찾으며 평소에 부족했던 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자신을 더욱 엄격히 요구하면서 무슨 일이든 회사를 위해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으며, 사장의 이기적인 처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한번은 주민센터 직원이 회사에 와서 괴롭힐 때 사장은 저를 만나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응대하면서 “○○씨는 회사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규정을 위반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회에서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풀이 죽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년간 비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않고 사계절 내내 굳건히 진상을 알렸습니다. 중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은 “당신처럼 젊은 사람이 파룬궁을 믿다니, 잡혀갈까 두렵지 않나요?”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복을 많이 받아 이렇게 좋은 신앙을 만났습니다.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사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이 순조로워져 하는 일도 잘되고 수입도 늘었으며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혜택을 받았기에 파룬따파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노부모와 아이들이 있고 어리석지 않는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저희 사부님께서 인류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아시고 저희에게 빨리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수련생들에게 큰 자비심이 있기에 개인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생사를 내려놓으며 여러분에게 진상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미래를 갖게 되고 오직 중생이 구원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10여 년의 수련 길을 되돌아보면 어기적거리며 걸어오고 시련을 겪었지만, 자비로우신 사부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오늘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생에 대법을 수련할 수 있음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언젠가 한 수련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수입이 더 높은 직장을 주고, 자녀들이 모두 칭화대나 베이징대에 입학하게 하며, 남편이 더 부지런하고 자상하게 해주는 대신, 대법 수련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수련의 길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저의 수련에 대한 신념은 반석처럼 굳건합니다!” 향후 저는 더욱 세 가지 일을 잘하며 착실하게 수련할 것이고 오직 사부님께서 미소 지으시기만을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수련생의 형사 재심 청구를 돕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생이 외지에서 불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현지 감옥의 직원 명단을 찾아보려 했지만 조회되지 않았다. 수련생들의 교류 문장, 특히 《변호사 역할 발휘 시 주의해야 할 네 가지 문제》, 《형사 재심 청구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탐구》 등 문장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예전에 감옥에 있는 수련생들의 재심 청구를 거의 따라가지 못했고, 감옥 부분은 공백이었다. 우리는 이 영역을 마음을 다해 잘해야 하며, 여기 생명들도 진상을 듣고 대법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에게 진상을 알고 깨달으며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래는 수련생 교류 문장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정리한 몇 가지 제안이다. 수련생들의 정념정행을 일깨워 감옥 내 중생들을 더욱 힘있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불법 선고 후 형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 재심 청구[刑事申訴]란 검찰원 및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 판결·재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말한다.

현재 중공의 공안·검찰·법원·사법 인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은 불법적인 재판을 형식적으로 대충 진행한 뒤 곧바로 수련생을 감옥에 가두어 안심하는 것이다.

한편 밖의 수련생들은 박해받는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흔히 법원의 불법 형사판결 앞에서 멈춰 서고, 법원 선고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판결문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사실 법원 판결은 사건의 끝이 아니며, 그 뒤에 우리가 중시해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바로 형사 재심 청구다.

이 시점에서 감옥에 불법적으로 구금된 수련생은 형사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 과거 불법 판결을 받았던 수련생도 역시 형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 재심 청구는 고발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불법적인 재판 결과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감옥 내 재심 청구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이 사법 박해를 받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공안·검찰·법원 단계에서는 많이 개입하지만, 감옥에 있는 수련생의 형사 재심 청구에 개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변호사가 감옥 내 수련생의 재심 청구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중공의 사악한 감옥 안에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련생이 감옥으로 납치된 뒤에는 강제 ‘전향’, 폭력적 ‘전향’, 신앙 포기를 강요당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식사·세면·화장실·수면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가족과의 연락도 모두 끊기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수련생이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대리하게 하고, 모든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며, 일단 감옥에 끌려갈 때 즉시 변호사가 면회를 오기로 약정한다면 재심 청구 과정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만약

감옥 측이 면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고 관련 부서에 고소해야 한다. 이는 감옥이 수련생에게 가하는 박해를 완화하는 데에도 일정한 도움이 된다.

감옥 관리 인원에게 진상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형사 재심 청구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법률은 중공 악당이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법제자가 법을 이용해 악을 바로 잡고 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중생을 구하는 수단이다. 수련생들이 감옥 부문을 더욱 중시하고, 감옥 관리 인원에게 더 깊이 진상을 알려 그곳 중생을 구원하길 권한다.

한편 변호사가 감옥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외부의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감옥은 파룬궁수련생을 더욱 거리낌 없이 박해하고, 심지어 수련생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변호사가 감옥에 와서 면회를 하고 재심 청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하면 감옥 관리 인원에게 진상을 이해할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곳의 사악한 요소도 진압할 수 있다. 이는 불법적으로 구금된 파룬궁수련생의 환경을 개선하고, 박해받는 정도를 줄이며, 박해를 억제하고 저지하는 좋은 방식이다.

조건이 되는 수련생들은 모두 이 일을 중시하고, 각지 감옥 인원의 정보를 폭넓게 수집해 인터넷에 올리길 바란다. 우리가 함께 사악을 해체하고, 그 지역의 중생을 구하기를 바란다. 또한 수련생들이 일부 법률 지식을 배우고 법률 용어도 이해하기를 바란다.

선(善)을 권하는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글/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대법제자가 수련을 통해 성숙된 권선[선(善)을 권하는]의 말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하는 작용은 정말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슴 깊이 느낀 경험이 하나 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아직 생생합니다. 저는 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수련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 합니다.

2003년 중반 저는 또다시 노동수용소에 구금됐습니다. 그때 박해를 당한 원인은 저에게 사람 마음이 너무 많고 너무 무거워서 완전히 법(法)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노동수용소에 갇힌 후 다른 대법제자들과 함께 매일 사부님을 비방하는 녹화물을 강제로 시청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제 마음은 더욱 침울하고 괴로웠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는 단식을 결심했는데, 목적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제가 단식을 시작하자마자 10여 명의 대법제자들도 저를 따라 단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의 설득과 단식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에 결국 저만 혼자 남아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단식한 지 5~6일 동안 노동수용소에서는 이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전에도 단식하는 대법제자가 많았기에 경찰들은 이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식 7일째 되는 날, 저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노동수용소 경찰은 의사를 불러 저에게 코를 통해 음식을 주입했습니다. 비강에서 위장으로 삽입된 관을 통해 잘게 뺀 인스턴트 라면을 제 위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음식물 주입 시 어떤 약이 추가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법리(法理)도 분명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단식만 고집했습니다.

나중에 노동수용소는 제 아내에게 저를 보러 오라고 통지했는데, 목적은 저를 설득해서 단식을 중단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제 귀에 대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밖의 수련생들이 당신을 위해 모두 행동에 나섰고 명혜망에도 당신이 박해 받는 기사가 실렸으니 꼭 견뎌내야 해요!” 아내의 말은 저에게 굉장히 큰 작용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제 역할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동수용소에서 이 대대를 관할하는 대대장은 수시로 저를 위협했습니다. “이 녀석 봐라, 네가 단식한다고? 이건 개조에 대한 대항이야! 네가 단식해서 여기서 나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파룬궁의 승리다!” 하지만 누워있는 저는 이런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식으로 박해에 반대할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때 노동수용소는 지도부부터 일반 감옥경찰까지 10여 분마다 전 세계에

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찰은 권선 전화를 듣고 정말로 정념(正念)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제 곁으로 왔는데, 곁으로는 저를 설득하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들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사방에 권선 편지를 보내고 있었고, 많은 부서가 명혜망 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대대장이 일행과 함께 제 곁으로 와서 다시 저를 위협했습니다. “알려주는데, 네 마누라가 너를 박해하는 기사를 사방에 보내더니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까지 보냈어! 네 마누라는 너처럼 반드시 법의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될 거야!” 대대장의 이 말을 듣고 저는 저도 모르게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대장은 제가 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한 말이 효과가 있다고 느껴 우쭐한 표정을 얼굴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을 돌렸습니다. ‘우리 리홍쯔 사부님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우주의 근본 대법인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내가 수련에 누락이 있어 박해를 당했지만, 우리 아내는 정념정행(正念正行)하고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자 얼굴의 땀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대대장은 이것을 보고 “어?” 하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얼굴의 땀은 어디 갔지?”

“어째서 파룬궁수련생이 아닌 사람들까지 모두 우리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까?” 노동수용소 지도원이 제 곁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짐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발표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수련생들이 사방에 전단을 보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보고 노동수용소에 전화해서 저를 선하게 대하라고 권했을 수 있습니다.

대법제자의 권선 작용은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것은 한 번은 그 부대대장이 제 곁에 와서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노동수용소 경찰들은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노동수용소에 있는 많은 상황을 피드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단식한 건데 누굴 탓해야 합니까?” 어떤 감옥경찰은 권선하는 대법제자에게 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심지어 자살할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사부님은 어째서 이런 제자를 두셨습니까?”라고도 했습니다. 하지

만 대법제자의 권선은 정말로 많은 경찰의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켰습니다. 노동수용소 부대대장이 대법제자의 권선을 들은 후의 모습이 바로 그 생생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부대대장이 제 곁에 와서 친절하게 이불깃을 덮어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해외 대법제자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저를 선하게 대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외 대법제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온화하게 그 해외 대법제자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대법제자들은 모두 우리 사부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심지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두 우리 사부님의 자녀입니다! 마치 당신이 누군가의 아버지이듯이, 당신의 자녀가 어떻든 간에 결국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 부대대장은 해외 대법제자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감동했고, 그래서 제게 와서 평화롭게 이 말을 전한 것입니다.

해외 대법제자가 노동수용소 부대대장에게 전한 권선의 말은 박해에 가담했던 이 경찰의 마음에 정념이 생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말을 저에게 전달했을 때, 그것은 또한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 속의 모든 나쁜 사념과 뒤죽박죽된 생각들이 이때부터 해체됐고, 저의 정념은 전례 없는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대대장이 나의 성공이 파룬궁의 승리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나는 철저히 생사를 내려놓고 진정한 대법제자가 되어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사부님의 대법을 위해 몸을 바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수련생의 권선의 말을 위해서라도 이 육신을 버리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당시 제 생각은 정말 이랬습니다.

나중에 저는 철저하게 법에서 스스로를 바로잡았고, 해외 대법제자들과 우리 도시 대법제자들의 각종 서신 전달, 권선, 구출 등의 활동이 더해지자 노동수용소는 이때부터 혼란에 빠졌고, 노동수용소 경찰들은 모두 그 대대장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대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대장과 갈등을 빚은 후, 탁자 위의 재떨이를 들고 대대장을 뒤쫓아 때렸고, 대대장은 겁에 질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대대장이

제 곁에 왔는데 말에서 이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맥없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제 아이가 학교 문 앞에서 가로막혔고 저에게 당신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지금은 제 아이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입원했고, 제 아버지도 입원했습니다. 아버지 댁이 몇 동 몇 호인지도 몰랐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압니까? 당신 때문에 제가 매일 진퇴양난입니다.”

제가 단식한 지 두 달이 됐을 때, 그날 아침 저는 몽롱한 상태에서 문득 환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제가 쇠문짝 하나를 손에 들고 산길을 따라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에는 하늘색 상의와 바지를 입고 하늘색 모자를 쓴 남녀들이 줄을 서서 단정하고 엄숙하게 산길 양편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쇠문짝을 들고 산꼭대기에 도착해 그 쇠문짝 위에 앉자,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산비탈을 따라 주욱 내려갔습니다. 이 꿈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돼 그 대대장이 다시 왔고, 저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다.” 그가 돌아서서 가자마자 저를 간호하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모두 왔으니 이제 당신을 데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단식했던 일은 20여 년이 지났고, 노동수용소도 이미 해체됐지만, 해외 대법제자가 제가 단식할 때 경찰에게 했던 권선의 말이 발휘한 거대한 작용은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대법제자들이 진상(眞相)을 알리는 과정에서 모두 것처럼 가늠할 수 없는 작용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세상의 중생들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노동수용소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사부님께서 발표하신 경문 《정념(正念)으로 악행을 제지하라》(2004년 2월 15일)를 읽었습니다. 제가 단식했던 나날들을 돌이켜보면, 처음의 사상적 혼란에서부터 나중에는 대법제자들의 권선을 거쳐 정념의 작용하에 저를 박해하던 경찰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많이 부족한 제자였던 저의 정념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대법제자들이 정념정행하는 과정은 사부님께서 이 경문에서 말씀하신 법리와 같습니다.

대법제자의 진정한 ‘선(善)’에 대한 나의 이해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아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대법제자의 진정한 ‘선(善)’에 대한 저의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1

한 수련자가 사악의 박해로 구금됐을 때 명절이 되면 수련자들이 박해받아 판결받은 수련생 집에 선물을 사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생의 아들은 중공 악당에 깊이 세뇌된 일반인으로 대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가족이 박해받는 것을 더욱 이해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사악의 편에 서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련자들은 그에게 진상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 기간에 수련자들은 그에게 선물을 사주고 홍바오(紅包, 돈봉투)를 주자 그의 아들은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에게 진상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련생이 이렇게 하는 것은 수련인의 진정한 선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상대 수련생은 그가 선물을 받기만 하면 대법제자의 선을 느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물과 홍바오를 전달하는 것은 대법제자가 수련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대표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악당의 박해를 받고 있는 처지이며 단지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수련자의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선물을 전달하지만 실질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대법 수련자의 자비와 선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의 가족이 대법 진상을 알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의 가족에게 더 많은 이해와 지지를 주고, 그 자신도 진상을 알고 대법의 제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과 박해받는 수련생은 하나의 정체(整體)입니다. 수련생이 집에 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묵묵히 원용하고 보충해야 하므로 그의 가족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은 수련생의 박해를 경감하는 것이자 수련생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선물을 전달하는 진정한 목적이고 대법제자의 진정한 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고 조직이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일반인을 해치게 됩니다.

사건 2

본 지역의 한 노년 수련생은 집에 자녀가 많고 자녀들도 효도하고 경제력이 있습니다. 노 수련생은 세 가지 일도 모두 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정면으로 진상을 알린 적이 없고 더욱이 자녀들이 그녀가 정법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게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대법제자가 정법 중에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은 당연히 일반인이 알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집에서 정정당당하게 법공부하고 연공하며 정정당당하게 수련생과 교류하고 나가서 진상을 알리는 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정법이 이미 오늘까지 왔는데 이것을 가족에게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노 수련생은 가족에게 대법 진상을 명확히 알린 적이 없어 가족들이 대법과 수련생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노 수련생이 병엽 가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녀들이 매우 효도했지만, 수련생이 병원에 찾아가 그의 자녀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병엽 중의 수련생과 교류하려 하자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엽 중의 수련생이 과오를 만회하고 자녀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싶었지만 병엽 가상으로 말을 할 수 없어 무능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그녀가 자신의 집착을 인식했다면 돌파구가 있었을 것이고 사부님께서 도와 주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 정념이 강하지 못하고 누락이 컸기에 이때 각종 환경의 교란을 받아 병엽 수련생과 그녀를 도우려는 수련생들 사이에 간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비록 모두 구세력이 한 것이지만 우리 평소의 정, 두려운 마음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당신은 대법 중에서 이익을 얻어 건강한 신체를 얻었고 가정과 자녀에게 좋은 점을 가져다주었지만 대법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정면으로 증명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노년 수련생은 집안 자녀들이 진상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그들이 대법에 대해 불경스러운 말을 해서 자신에게 업을 지을까 두렵다는 등등 핑계를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마음과 정인가요! 당신은 모르는 사람은 모두 구하면서 왜 당신 자신의 자녀는 구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가정을 잘 균형 잡는 것은 당신의 수련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우리 대법 수련인의 ‘선’은 자아를 내려놓고 담담하게 사심 없이 최대한도로 중생을 구하는 것을 중시해야지, 절대 사람의 정으로 유지하는 표면적 화목이 아닙니다.

사건 3

어떤 수련생은 자신이 대법 수련생이라고 생각해 모든 곳에서 수련인의 선을 체현해야 한다고 여겨, 친인척이 무리한 요구를 제기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인척은 당신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신분증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거나 집에 와서 거주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은 당신이 이미 그에게 전방위적으로 깊이 진상을 알렸고 삼퇴도 권했으며, 수년간의 접촉을 거쳐 그녀가 당신과 대법에 대해 이미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그녀가 제기한 요구는 모두 당신이 승낙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연히 평화롭지만 위엄을 잃지 않고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자 그녀가 대법에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수련인은 친인척이 대법 진상을 받아들이고 삼퇴하게 하려고 물질적 이익 등 물건으로 ‘매수하고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 결과 그녀들은 표면적으로는 대법 진상을 받아들이고 삼퇴했지만 뒤에서는 대법에 불경한 말을 하며, 특히 관건 시각에 그녀들이 대법에 대해 정념정행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어떤 대법제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대법제자 신분을 숨기지 않고, 대법제자의 일처리 원칙을 숨기지 않으며 사회에서든 주변 생활환경에서든 자신에게 좋은 수련환경을 개창했고, 평소 일언일행에서 엄격하게 대법의 표준에 따라 일하고 처사했습니다. 수련생은 자신이 잘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유력

하게 대법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깨달았기에 그와 접촉하는 세인 중에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사람도 먼저 수련생에게 이 도움이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또 일부 정념정행하는 수련자들이 처음의 어려운 수련환경 중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아 가족이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던 것에서 나중에 전력으로 지지하고, 점차 자신에게 매우 느슨한 수련환경을 개창해 수련 중에서, 세 가지 일을 잘하는 중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 사부님께서 맡기신 세 가지 일을 더욱 잘한 것을 보았습니다.

수련생 여러분,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慈悲(츠뻬이)와 위엄이 함께 있다”(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법에 대한 정면적 이해와 중생을 구하는 이 부분 수련에도 체현됩니다!

이상은 단지 제 현 단계의 이해이며 맞지 않는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돈댁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사람 마음을 제거하다

글/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명혜망] 올해 나는 거주 환경을 바꿨다. 딸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돈댁은 나이가 80세 가까이 돼 혼자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딸과 사위는 내 나이도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 나와 사돈댁을 함께 살도록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근처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평소 우리를 돌보기 편하도록 했다. 나는 당시 장소를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디에서든 모두 수련이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내가 수십 년간 혼자 사는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한 사람이 더 있으니 내 생활을 방해하고 수련을 어지럽히는 것 같았다. 나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낮에는 마음이 어수선하며 법공부를 적게 하

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 몇 년간 나는 혼자 살면서 TV도 없고 휴대폰도 보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하고 수련생들의 교류를 듣고 밖에 나가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등, 모두 수련과 관련된 일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돈댁은 TV를 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켤 줄 몰라 내가 매일 TV 켜는 것을 도와주다 보니 일부 내용이 나를 끌어당겨 나도 거기 앉아서 보게 됐다.

사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내가 사돈댁을 얹잡아봤기 때문이다. 사돈댁은 천성이 나약하고 겁이 많아 일을 두려워하는데 나는 사돈댁이 많은 경우 일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느꼈고 마치 어린아이의 지능 같았다. 게다가 사돈댁은 대법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때때로 사돈댁이 말하고 일하는 것을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마음속으로 정말 화가 났다. 오랫동안 화를 내본 적이 없던 나는 마음이 짝 막혔다. 때때로 나는 참지 못하고 사돈댁에게 한마디 하고는 나중에 매우 후회했다. 마음속으로 ‘이런 노인과 무슨 진지하게 다룰 게 있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돈댁의 두 아들과 두 며느리는 그녀에게 매우 잘해주며 모두 특별히 효도한다. 지금 시대에 이런 효자가 있다니 노인은 정말 복이 있었다. 사돈댁을 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라고 부르는 친척들까지도 자주 와서 사돈댁을 보고 맛있는 것을 많이 사거나 돈을 준다. 내 딸이 사돈댁과 말할 때 인내심 있고 온화하며 마음속 깊이 사돈댁을 좋아하고 상처 주지 않는 것을 보니, 내 마음에는 의아함과 함께 질투심이 생겼다. 딸은 나에게 매우 반항적이고 짜증스럽게 나를 꾸짖으며 곳곳에서 나를 못마땅해했다. 명백히 내가 옳게 말해도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엄청난 차이는 몇 년 전, 평생의 고난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던 강인한 나를 눈물 흘리게 했다. 다행히 나는 대법을 얻어 대법의 지도가 있어 그것이 업력으로 조성된 것임을 알았다. 만약 내가 속인이라면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인 그 고통과 원망, 불공평을 통제하지 못하고 발산했을 것이다. 지금 어쨌든 내 마음속에는 대법이 있어 내가 가장 어렵다고 느낄 때 법공부만 하면 법리가 내 마음속 원한과 응어리를 해소해주며 나에게 올바른 사유

를 보여준다. 사람이 세상에 오는 것은 모두 쉽지 않으며 함께 있을 때는 화목하게 지내야 내가 수련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매번 말로 사돈댁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매우 후회하고 괴로웠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내 문제를 찾았다. 질투심, 쟁투심,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마음……. 마음을 제거할 때 정말로 뼈를 깎는 것처럼 매우 괴롭고 마음이 아팠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각나며 마음이 쥐어짜는 듯 아팠다. 사람 마음은 비록 찾아냈지만 태연하게 내려놓을 수 없었고 그 완고하고 좋지 않은 것이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어 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일은 없다. 아이와 사돈댁의 표현도 나의 업력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다. 나는 수련인이며 사실 이러한 이치를 나는 모두 알고 있다. 법 속에서 모두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모두 수련의 길에서 나를 제고시키는 데 이용되는 요소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을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어 수시로 되 돌아온다. 얹잡아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마음, 질투심. 자주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가 단순하며, 자주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지능이 낮으며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데 왜 모두가 그녀에게 잘해주지? 그녀는 어째서 이렇게 복이 있지? 나는 각 방면에서 그녀보다 훨씬 나으며 나는 여자 중에서도 강자인데 아무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며 보살펴주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나는 진정으로 내 심성에 존재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뿌리 깊은 곳의 것이 정(情), 사(私), 자아임을 보았다. 그것은 질투심, 쟁투심, 교만함, 독선을 낳았고 모두 공산당 당문화에 물들고 해를 입은 탓이다. 때때로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미 30년을 수련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니 이것은 어떻게 수련한 것인가?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너무나 부끄럽다. 또한 나는 매일 밖에 나가 대면으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시키고 진상을 알리는데, 이런 속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가! 나는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결심한다. 반드시 이런 더러운 물질들을 제거하겠다. 이런 마음들은 모두 내가 아니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주 사부님께 이런 완고한 사람 마음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청했다.

나는 깊이 알고 있다. 수련인으로서 이런 마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정법이 최후의 순간에 이르렀는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기를 수 있는가? 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직도 속인의 행복을 얻으려 하는가? 독선적이며 항상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해하고 트집 잡고 비난하며,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 그들 마음속에 고통과 실망을 조성했다. 나는 그들을 선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어찌 선한 보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고통스럽게 집착을 제거하는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의식했다. 자세히 생각해보니 사실 그 노인은 여전히 매우 좋다. 부지런하고 깨끗하며 앞장서서 일을 하고 일부 일들은 모두 내 말을 듣는다. 최근 한동안 나는 사돈댁의 더 큰 장점을 발견했는데 수련인인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이다. 평소 내가 무심코 어떻게 말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극해도 그녀는 절대 반박하지 않으며, 마음이 평온하고 다투지 않으며 여전히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혼자 30년을 살았으며 환경이 편안하고 조용하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 환경에 와서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 마음이 드러났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스스로 수련을 꽤잘게 했다고 느꼈다. 이번에 나 자신을 반성하니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다. 그들이 나에게 수련 제고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으로 진정으로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나는 속인의 일을 잘하고 유능한 장점을 수련 속으로 가져왔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하면서 단지 일하는 것에만 그쳤고 심성을 수련하는 데는 진정으로 공을 들이지 않았다. 스스로 일을 잘하는 것이 심성의 체현이라고 여겼지만 심성의 제고가 관건이다.

내가 진정으로 사람의 관념을 바꾸고 수련인의 상태와 선심(善心)으로 그들을 대할 때 환경은 변했다. 딸은 나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어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배려하며 관심을 가져준다. 사돈댁은 더욱 기뻐하며 입이 귀에 걸려 나를 어떻게 잘해줘야 할지 모른다.

나는 앞으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따라 노력해 심성 제고를 중시하고 자신을 잘 수련하며, 자신의 변화로 대법을 실증하고 집과 주변 사람들이 대법의 아름다움을 보거나 느끼도록 하겠다.

난상(亂象) 속에서 오직 신만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현재 전 중국의 경제가 비상사태이며, 각 업종이 심각하게 위축돼 사람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오직 두 가지 업종만 가장 호황인데, 그것은 바로 병원과 장례업이다.

대도시의 대형 병원들은 모두 사람들로 넘쳐나며, 특히 종양 병원(암 병원)은 연줄을 찾지 않으면 들어갈 수조차 없다. 화장터는 매일 긴 줄을 서고 있고, 직원들은 지금 사망하는 사람이 전염병 시기보다 더 많다고 말한다.

중공 바이러스가 폭발하고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한 이후, 중국인의 사망률과 중증 질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 중국인들 대부분은 독극물 백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강제 접종 기간을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제2차 문화대혁명과 같았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성인들은 출근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등교할 수 없었으며, 상가에서는 물건을 살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달걀이나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게 하는 지역도 있었다. 사실 조금이라도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겠지만, 아쉽게도 맹목적 추종에 익숙해진 대다수 사람은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도 여전히 맹목적 추종을 선택했다.

2021년 중공 악당은 노년층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총공세를 폈는데, 집에 백신을 맞지 않은 노인이 있는 경우, 동네 주민센터(社區), 구위원회(區委會)에서 끊임없이 찾아와 협박하고 유혹하며 달래고 속였으며, 암에 걸려 마비돼 누워있는 사람조차 놓아주지 않았다. 그 결과 그해 연말 매우 많은 수의 노인들이 한꺼번에 사망했고, 화장터는 시신을 다 태울 수 없을 정도였다.

과거에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돌연사에 대해 거의 듣지 못했지만, 지금은 중·청년의 돌연사가 일상다반사가 됐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이후에 암, 심근

경색, 뇌경색, 심장병, 백혈병, 에이즈, 포진, 결절 등의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 이를 코로나 백신의 ADE 증강 효과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해, 이 백신은 사람의 면역력을 파괴해 각종의 질병을 확대하고 증강시키며, 병이 없던 사람에게 병을 만들어내고, 작은 병을 큰 병으로 바꾸며, 큰 병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음에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전의 중국인들이 중공의 거짓말을 맹신했다면, 3년여의 전국적 비정상 봉쇄와 적색 테러, 그리고 독극물 백신이 가져온 거대한 피해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깨어났고, 마침내 공산당이 바로 사람을 죽이러 왔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됐다.

과거에는 누가 중국공산당(중공)이 저지른 나쁜 짓을 폭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반당(反黨)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모두 중공 악당을 옹호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수호하던 악당이 자신을 단지 실험용 흰 쥐로 여겼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늘이 정말 자신의 몸을 찌르고 나서야 고통을 알게 됐는데, 다만 너무 늦게 깨달았고, 대가 또한 너무나 크다.

백신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 방법은 있다. ‘마(魔)가 한 척(尺) 높으면 도(道)는 한 장(丈) 높다(魔高一尺, 道高一丈)’는 말이 있다. 많은 파룬궁수련생도 백신 맞았고, 진상을 깨닫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한 많은 사람도 백신을 맞았지만, 독극물 백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파룬따파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공산악당은 사람을 죽이러 왔으며, 그 자체로 악령이자 마귀다. 그리고 사람은 마귀에 대항할 수가 없다. 특히 모든 중국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끊임없이 피 묻은 깃발(血旗)을 향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공산악당은 당신의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하고 독극물 백신을 강제하면서도 떳떳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것이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원한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뿐이며,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신뿐이다. 오직 중공이라는 이 사악한 조직에서 탈퇴해 더 이상 그 일원이 되지 않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인정해야만 신의 보호를 받고 진정한 건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 2025년 10월 25일, 멕시코 베라크루스주 주도인 할라파(Jalapa)에서 제 9회 카테리나 축제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렸다. 현지 파룬궁 수련자들은 퍼레이드를 통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원칙을 전하며, 최근 홍수 피해를 받은 할라파 시민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장을 찾은 한 참가자는 “파룬궁수련자들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다”라며 감탄을 표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83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464만 7846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